작 품 집

사랑의 무게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

차 례

단편소설

사랑의 무게 …… (3)

시

승리의 10년 …… (48)

위대한 후대사랑을 노래하노라(서사시) …… (51)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보금자리여(시초) …… (71)

송화거리에 넘치는 행복의 노래(시초) …… (83)

칠불하리라 천길바닥으로 …… (90)

미리감치 봐두어라 …… (92)

석장의 사진이면 충분해 …… (94)

밖에 나오지 말아 …… (97)

수필, 단상

뜨거운 5월(수필) …… (100)

꺼지지 않는 **불빛**(수필) …… (106)

후회속에 자기 손을 보며(단상) …… (109)

【단편소설】

사랑의 무게

김 정 열

1

《선생님! 은성이가 미끄럼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아이들의 다급한 소리에 해연은 깜짝 놀라 운동장으로 뛰여나갔다. 미끄럼대아래서 은성이라는 애가 넘어진채 숨넘어갈듯 비명을 치는 모양이 눈앞에 안겨들었다. 황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아이는 왼팔을 부여잡고 자지러지게 울고있었다. 몹시 아파나는지 오똑한 코등에 좁쌀알같은 땀방울까지 송골송골 돋혀있는 아이를 보니 속이 한줌만해졌다.

(어마나, 혹시 뼈라도 상한게 아닐가?)

해연이 우는 아이를 달래며 어쩔줄 몰라하는데 유치원 원장과 교양원들 몇이 숨가삐 달려나왔다.

《어찌된 일이예요?》

은성이의 상한 팔을 조심스레 어루만져보던 원장이 해연에게 묻는 말이였다.

《원장선생님, 제가 그만…》

해연은 사색이 된채 고개를 떨구었다. 하얗게 질린 해연의 얼굴에 당황함과 자책감이 한가득 실려있는데 애티가

력력한 처녀의 입술은 금시 울음이라도 터뜨릴듯 바르르 떨리고있었다.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며칠전 이 유치원에 교양원으로 배치되여온 해연이다. 아직 정식으로 애들을 담임하지는 못하고 견습기간을 보내고있던 그는 오늘 낮은2반 교양원이 갑자기 강습이 제기되여 자리를 뜨는 바람에 림시로 아이들을 맡아보게 되였던것이다. 담임교양원이 떠나면서 장난세찬 낮은반 아이들이여서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원장선생님도 여러모로 강조했건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과외놀이시간이 되자 애들을 먼저 운동장에 내보내고 뒤미처 따라나가려댔는데 그 틈에 선참으로 뛰쳐나간 은성이가 미끄럼대를 타며 장난치다가 그만에야 사달을 낸것이다. 모든것이 교양원인 자기탓이라고 느껴졌다.

유년기아동들의 특성에 맞게 세심한 주의를 돌렸더라면 얼마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걸…

해연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봄서리맞은 햇잎마냥 애처로이 처져내린 그의 속눈섭가에 눈물방울이 맺혀 떨었다.

처녀의 그 모습앞에 원장도 사연을 짐작한듯 눈길을 돌렸다.

《우선 내 책임이 커요.》

원장은 자신을 채찍질하듯 혼자말을 하더니 지체없이 해연에게 일렀다.

《해연선생, 빨리 은성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차를 부를테니 차비하세요.》

그제서야 제 할바를 깨달은 해연은 얼른 눈물을 닦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유치원마당앞에 와 멎어섰다.

해연이 은성이를 태우고 바삐 떠나려는데 원장이 불러세웠다.

《가만!》

원장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해연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것같은데 곧바로 옥류아동병원에 데려가는게 좋겠어요. 있다가 나도 뒤따라가겠어요.》

이렇게 되여 해연은 은성이를 데리고 옥류아동병원으로 향하게 되였다.

차에 올라서도 아픔이 멎지 않는지 은성이의 입에서는 그냥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해연은 손에 땀을 쥐고 아이의 그 모양을 안타까이 지켜보았다. 그럴수록 점점 더 가슴이 조여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무쪼록 은성이가 인츰 완치되여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면 원장선생님이랑 담임교양원앞에는 어떻게 나서고 은성이 부모들은 또 무슨 낯으로 대한단 말인가. 한데 차는 왜이리 굼뜨게 달릴가…

해연은 바늘방석에 앉은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운전사에게 간청했다.

《운전사동지, 차를 좀더 빨리 몰수 없을가요?》

그러는데 불현듯 착신음이 울렸다. 손전화기의 액정화면에서 낯선 번호가 깜빡거린다.

해연이 응답하자 전화기에서 녀인의 초조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해연선생님입니까? 은성이 어머닙니다.》

해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금시 모닥불을 들쓴듯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목소리가 처녀의 귀전을 숨가삐 두드렸다.

《방금 원장선생님이 알려줘서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애가 심하게 다쳤는가요?》

《저…》

어떻게 말할지 몰라 갑자르던 끝에 해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팔을 다친것같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저때문에 은성이가…》

해연의 목소리가 끊어져버렸다. 아이때문에 속이 새까매있을 은성이 어머니를 생각하니 견딜수 없는 자책감이 입을 막았던것이다.

해연이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는데 잠시 침묵하던 은성이 어머니가 다소 가라앉은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 은성이가 워낙 장난이 세차답니다. 집에서도 늘쌍 애를 먹이는걸요 뭐.》

도리여 제 아이를 탓하는 우선우선한 그 목소리가 허둥거리는 해연의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비록 초면이건만 퍼그나 사려깊은 녀인같았다.

해연은 상대의 리해성있는 태도에 자못 당황해하며 성급히 말했다.

《은성이 어머니, 지금 은성이를 데리고 옥류아동병원에 가는중입니다. 걱정마십시오. 다 잘될겁니다.》

그러자 은성이 어머니가 제켠에서 인사를 한다.

《고맙습니다. 우리 애때문에 선생님한테 수고를 끼쳐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그리로 가겠습니다.》

은성이 어머니의 전화까지 받고나니 해연은 교양원으로

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가책감으로 하여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어느덧 차가 병원에 도착하였다.

해연은 조급한 마음이 앞서 덤비기 시작했다. 허나 정문을 통과하여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입에서는 경황이 없는 속에서도 저도 모르게 탄성이 새여나왔다.

중앙홀의 높다란 천정에서 은은한 빛을 뿌리는 꽃술모양의 색조명등들, 그 빛을 담아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바닥타일, 동심이 약동하는 그림들로 단장된 벽이며 기둥들…

TV화면으로 보기는 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와보니 꼭 동화의 환상세계에 들어선것만 같았다.

그래서인가. 어느결에 해연의 마음속에서 조바심은 밀려나고 모든 일이 잘될거라는 안도감이 따스하니 스며드는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접수를 하자마자 병원의사들이 친절하고 능숙한 솜씨로 모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해나갔다.

은성이를 진찰하고난 구급과 의사가 해연에게 설명해주었다.

《손목뼈를 상했군요. 골절입니다. 입원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해연은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의사의 말이 자기에 대한 신랄한 비난같이 들려왔던것이다. 하지만 자책이나 하고있을 때가 아니였다. 은성이가 곧 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는 동안 해연은 자기 할 일을 찾아하기 시작했다.

그가 한창 아이의 입원수속을 하느라 오가는데 손전화기의 착신음이 또다시 울렸다. 번호를 보니 아까 전화왔던 은성이 어머니였다.

(벌써 병원에 도착했나?)

해연은 얼른 전화를 받았다.

《은성이 어머닙니까? 은성인 지금 사지외과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의사선생님말씀이 손목뼈가 골절돼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 은성이 어머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는 해연에게 은성이 어머니는 오히려 위안조로 말하였다.

《그런 말씀마세요. 오히려 제가 선생님한테 미안한걸요. 사실은 저…》

해연은 의아해졌다. 왜서인지 은성이 어머니가 머뭇거리는것이였다. 그러다가 잠시후 다시 말을 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좀 늦어질것같아 그럽니다. 이런 땐 애결에 누구보다 엄마가 있어야 할텐데…》

그러고보니 은성이 어머니의 어조가 어딘가 긴박해보인다. 숨결도 고르지 못하고 말투도 무엇인가에 쫓기는듯하고… 제 자식이 병원으로 실려왔는데도 인츰 오지 못하겠다는걸 봐선 분명 피치못할 급한 사정이 생긴듯싶었다.

해연은 응당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며 망설임이 없이 은성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은성이 어머니, 근심말고 일을 보십시오. 그동안 은성인 제가 돌볼테니까요.》

해연의 말에 은성이 어머니는 무척 고마워하며 일을 인차 보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외우고는 바삐 전화를 끊었다.

입원수속을 끝내고 돌아와보니 은성이는 아직 치료를 받고있는중이였다. 치료실문이 여닫기는 틈으로 간호원이 아이의

가느다란 팔목에 붕대를 감아주고있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좀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운동장이 좁다하게 뛰놀던 애가 괴로와하는 모양을 보니 짜릿한 아픔이 해연의 가슴을 허벼왔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해연은 치료실이 바라보이는 홀의 의자에 가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아이들을 맡은 첫날부터 이런 사고를 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랴싶었다. 아마 다시는 자기한테 애들을 맡기려 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문득 며칠전 유치원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날 어머니는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흥분에 겨워 이른아침부터 경대앞에서 화장을 한다, 파란 리봉이 달린 채양모를 쓰고 나비춤을 춰본다 하며 들떠있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원, 저런 철부지가 교양원일을 꽤 해내겠는지. 이건 꼭 아이가 아이를 가르치겠다는것같은게…》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스러워하는 빛이 력력했다. 동네 송아지 커서도 송아지라더니 아직도 딸을 철부지 대하듯하는 어머니였다.

해연은 자기가 쓰고있던 채양모를 얼른 어머니의 머리에 올려놓으며 노래하듯 명랑하게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부턴 당당한 선생님이란 말이예요. 두고보세요. 얼마 안있어 숱한 <꼬마제자>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조롱조롱 나한테 매달리는걸요. 호호호…》

딴은 제나름의 애착과 포부를 안고 유치원교양원이 된 해연이였다.

워낙 다 자란 지금까지도 아이적의 동심을 다분히 간직하고있는 해연은 류달리 아이들을 고와한탓인지 교원대학에 입학하자 주저없이 학교전 교육학과를 지망하였다.

소학교나 중학교교원도 좋지만 그보다는 유치원교양원이 더 마음에 들었다. 아이들에게 우리 글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싶었다. 티없이 맑은 눈동자들을 들여다보며 재미나는 얘기랑 들려주고 고사리같은 손들을 잡아주며 신나는 노래춤을 배워주는 일은 얼마나 보람차고 즐거운 일이랴.

더우기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뛰여난 재간둥이들을 키워내여 온 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는 유치원교양원들을 볼 때마다 해연은 자기도 그런 행복의 단상우에 오르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이 설레이군 하였다. 하기에 대학시절에 예능기량을 열심히 익혀 전국대학생예술공연무대에 독창종목을 가지고 오르기까지 했던 그가 아닌가. 그렇듯 부풀어오르는 희망을 안고 마침내 교양원이 되였건만 첫걸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실망시켰으니…

막상 이 며칠간 교양원일을 해보니 어머니의 걱정도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직 말도 채 번지지 못하는데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장난세찬 유치원애들을 다룬다는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던것이다. 경험많은 교양원들처럼 때로는 엄한 표정을 지어보이면서 장난꾸러기들을 다잡아줄줄도 알아야겠는데 아이들이 조금 엄살을 부려도 눈물부터 글썽해지는 자기 같은 애숭이가 어떻게 교양원노릇을 바로하랴싶었다.

(내가 교양원구실을 꽤 할수 있을가?)

이 시각 해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위구심이 번거로이

맴돌고있었다.

은성이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해연이 무거운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눈길을 쳐드니 낯모를 한 녀인이 저켠복도에서 총총히 나와 사지외과쪽으로 들어가는것이 보였다. 이방저방을 살펴보며 걸음을 옮기던 그 녀인은 은성이가 있는 치료실앞에 이르러 멈춰섰다.

급히 달려왔는지 녀인의 어깨가 숨겹게 오르내리고있었다. 녀인이 치료실의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

그런데 웬 일인지 문을 열듯말듯 망설이기만 하는것이 이상했다. 차림새로 봐서 병원사람은 아니고 외래자인듯싶은데…

해연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은성이 어머니가 아닐가?)

하지만 은성이 어머니는 사정이 생겨 늦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혹시나하는 생각에 녀인을 유심히 눈여겨보는데 승강기에서 바삐 내린 한 녀의사가 해연이 앉아있는 홀을 지나치다가 그 녀인을 띄여보고는 찾는것이였다.

《신미향어린이의 어머니 아니세요?》

그러자 녀인이 이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아, 부과장선생님…》

녀인은 치료실의 문손잡이를 놓고 황황히 녀의사에게로 다가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초조히 묻는 녀인에게 녀의사가 대답했다.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향이는 심실중격결손증입니다.》

《예?…》

《선천성심장질병이지요.》

《그럼?…》

녀인의 갸름한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러는 녀인을 안심시키려는듯 녀의사는 우선우선한 어조로 말했다.

《너무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우리 과는 소아심장외과분야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있으니까요.》

40전후로 보이는 녀의사의 모습에서는 외과의다운 결단력과 자신심 그리고 그 나이에는 이르다고 할 관록이 느껴지고있었다. 그들이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있기에 해연은 눈같이 흰 위생복의 가슴노리에 단 녀의사의 명찰을 알아볼수가 있었다.

《심장혈관외과 부과장 정향순》

그 순간 해연의 머리속에 언젠가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을 소개하였던 신문기사의 제목이 떠올랐다.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

불같은 인간애와 높은 실력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새 심장을 안겨준 그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가.

해연이 새삼스러운 눈길로 녀의사를 바라보는데 그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는 녀인에게 재촉하듯 이르는것이였다.

《이제 곧 미향이를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수술동의서에 수표를 해야 하니 저와 함께 가십시다.》

녀인은 의사를 따라 급히 저켠복도쪽으로 멀어져갔다. 보아하니 아이를 데리고 심장혈관외과에 온 어머니같았다. 아마 창황중에 방을 헛갈렸던 모양이다.

우연히 눈앞에 스쳐간 정향순부과장의 모습은 왜서인지

산란하던 해연의 마음을 가라앉혀주었다.

그래, 다름아닌 온 나라 부모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옥류아동병원에 왔으니 은성이가 다시금 마음껏 뛰놀게 될 날도 멀지 않으리라.

해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훈기가 서려올랐다.

얼마후 치료를 마친 은성이가 간호원의 손에 이끌려나왔다. 해연은 그들과 함께 입원실로 향했다.

2

가는 곳마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아동병원의 입원실도 신통히 동화세계처럼 꾸려져있었다.

포근한 빛갈의 벽지들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끄는 아롱다롱한 무늬들이 방글거리고있었고 침대머리마다 붙인 동그란 표식판들에는 쇠메장수며 예동이, 국화 등 아동영화의 낯익은 모습들이 그려져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아이들이 입고있는 예쁜 환자복들에도, 벽우에 걸려있는 동물그림과 꽃잎모양의 조명등마다에도 천진란만한 동심이 밝게 비껴흐르고있었다.

입원실의 시설이며 비품들도 더할나위없이 훌륭했다. 다기능화된 정갈한 침대들과 폭신폭신한 안락의자들, 산뜻한 거울이며 사물함들에 TV와 랭동기까지 갖추어져있는 방안은 병원이라기보다 야영소를 방불케 했다. 로대에서 비껴드는 따뜻한 봄볕이 입원실을 더욱 아늑하게 해주는듯싶다.

해연도 은성이와 함께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은성이가 입은 옷은 하얀 바탕에 동글동글한 물방울무늬들이 새

겨져 병원에서 《물방울옷》이라 불리우는 아이들의 환자복이였고 해연이 입은 옷은 연분홍바탕에 흰 줄이 간 어머니들의 환자복이였다.

해연이 은성이를 데리고 온 유치원교양원이라는것을 안 간호원은 처음에는 환자복을 내주기를 주저하였다. 아동병원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어린이들에 한해서 어머니들이 곁에서 돌보는것을 허용하지만 혹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간호원들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정성을 다하기에 굳이 교양원이 아이곁에 남아있지 않아도 된다는것이였다.

하지만 해연은 도리를 저었다. 이 시각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가 은성이의 어머니를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듯 궁전같은 아동병원에 와보니 자기도 잠시나마 동심세계로 되돌아가고싶은 천진한 욕망이 슬며시 살아난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가 은성이와 같이 든 입원실에는 회복기에 있는 같은 또래의 두 아이가 자기 어머니들과 함께 있었다. 한쪽침대에서는 량볼이 사과알만한 사내애가 제 어머니가 입에 넣어주는 깨강정을 깨물고있었다.

《세웅아, 이젠 그만 먹자. 의사선생님이 그러시지 않던. 단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구.》

어머니가 이렇게 만류하건만 사내애는 장난궂게 코방울을 발름거리며 한사코 입을 더 크게 벌린다.

다른쪽 침대에서는 코가 되똑한 처녀애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림책을 번지고있었다.

《엄마, 이거 고슴도치!》

처녀애가 그림을 짚으며 반색하자 어머니가 응답해준다.

《그래, 호랑이가 고슴도치가 무서워 달아나는걸 보렴.》

해연이네가 자리를 잡자 사내애의 어머니가 아들애에게 이르는것이였다.

《세웅인 참 좋겠구나. 봐요, 새 동무가 왔는데 꿀꿀이처럼 혼자만 먹겠어요. 동무하구 사이좋게 나눠먹어야지요.》

아들애의 입에 묻은 깨알들을 떼여내며 어머니가 깨강정 한개를 쥐여주자 사내애는 성큼 일어나더니 은성이앞에 다가왔다. 그리고는 깨강정을 내밀며 푸접좋게 웅얼거렸다.

《같이 먹자.》

그 모양이 귀여워 해연이 생긋이 웃는데 은성이는 선뜻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해연이 곁에서 속살거렸다.

《은성어린이, 새 동무가 친하자고 찾아왔는데 반겨줘야지요.》

그래도 은성이는 시무룩한 표정이다. 할수없이 해연이 대신 깨강정을 받으며 사내애의 등을 토닥여주었다.

《세웅이라고 했나요. 참 착한 어린이군요. 앞으로 은성어린이랑 친한 동무가 돼야 해요.》

해연에게서 칭찬을 받자 세웅이는 자못 으쓱해서 엄마에게로 뽀르르 달려갔다. 세웅이 어머니가 좋아라 캐득대는 아들애를 품에 안는다.

《아유, 우리 세웅이 정말 용쿠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처녀애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다.

《은성이, 여기 와서 우리 윤미랑 재미난 그림책을 함께 보지 않을래요?》

금방 입원한 아이가 서먹해할가봐 저마끔 왼심을 쓰는 고마운 마음들이였다. 하건만 고집스레 다물린 은성이의 입

은 좀처럼 열릴줄 모른다.

해연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애가 아직 아픔이 멎지 않았나?)

어머니들에게 은근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해연이 딱해하는데 그런 기색을 눈치챈듯 세웅이 어머니가 동실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말하였다.

《우리 애도 그랬어요. 원래 애들이란게 주사를 맞아라, 약 먹어라 하면 도리질치기마련 아닌가요. 우리 세웅이도 병원에 가자니까 처음엔 싫다구 얼마나 떼를 썼게요. 한데 막상 아동병원에 입원해선 하루도 못가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게 아니겠어요. 왜 안그러겠어요. 여기 와보니 신나는 놀이터가 없나 교실이 없나, 이렇게 입원실까지 아이들 맘에 꼭 들게 꾸려져있지 않나요. 글쎄 나까지도 아동병원에 들어서구보니 아이의 병걱정보다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우리 세웅이가 치료받겠구나 하는 기쁨이 먼저 앞서더라니까요. 호호호…》

세웅이 어머니의 흥오른 말에 윤미 어머니도 끼여들었다.

《우리 윤미도 처음에 왔을 땐 할머니랑 동무들이 보고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새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원언니들한테 어찌나 정이 폭 들었는지 퇴원할 때가 돼오니까 막 서분해하는 눈치예요.》

해연은 감심어린 낯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그의 눈앞에 비쳐온 광경들이 어머니들의 말에 쉽사리 공감을 느끼게 하였던것이다.

그래, 은성이도 인차 그리될거야. 친부모나 다름없는 다심한 정들이 자기를 보살펴주고 집보다도 더 포근한 보금자리가 자기를 품어주는데 달리될수 있을가. 모름지기 저

세웅이나 윤미처럼 퇴원할무렵이면 아동병원을 떠나기 아쉬워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 …

여전히 시무룩해있는 은성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해연이 방그레 웃는데 문이 열리더니 보조개가 귀엽게 패인 담당간호원처녀가 들어왔다.

《어린 동무들, 약먹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아동방송시간의 방송원을 방불케 하는 차랑차랑한 그 목소리에 아이들의 눈길이 일제히 문가에로 쏠리였다. 약을 먹자는데도 초롱초롱 반짝거리는 세웅이며 윤미의 눈빛들을 보니 간호원처녀와 퍼그나 친숙해진듯하다. 어머니들도 간호원을 반겨맞았다.

간호원은 먼저 은성이에게로 다가왔다.

《은성어린이, 체온부터 재볼가요?》

이렇게 말하며 체온계를 꺼내든 간호원은 익숙한 솜씨로 은성이의 체온을 쟀다. 그러더니 붕대를 감은 은성이의 팔목을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약을 꺼내며 말했다.

《이 약을 먹으면 아픔이 멎을거예요. 자, 어서 먹자요.》

해연이 얼른 고뿌에 물을 따라주자 간호원은 살뜰히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그러고나서 찌뿌둥한 낯빛을 풀지 않고 있는 은성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의아해하였다.

《그런데 얼굴이 밝지 못하군요. 누가 우리 은성어린이를 이렇게 노엽혔을가요?》

하지만 은성이는 대답이 없다.

그러는 은성이에게 간호원은 짐짓 서글픈 표정을 지어보이며 하소연하듯 말하는것이였다.

《이 누나는 말이예요, 맘이 몹시 약해서 어린 동무들이 조금만 성을 내도 막 가슴이 떨리구 엉엉 울고싶어요.》

간호원이 가슴이 활랑활랑 떨리는 흉내를 내고 얼굴을 싸쥐고 우는 시늉까지 해보이자 그만에야 은성이가 키드득거리며 웃고말았다. 간호원이 피우는 우스개가 마침내 긴장되였던 어린 마음을 눙쳐놓은 모양이다.

간호원의 두볼에도 웃음을 머금은 보조개가 함뿍 패였다.

《그것 봐요. 은성어린이가 웃으니까 누나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걸요. 이제부턴 이 누나하구 딱친구가 되자요. 자, 약속했어요.》

간호원은 은성이와 새끼손가락까지 걸고나서야 다른 애들한테로 옮겨갔다. 체온도 재고 약도 먹이고 어머니들에게 설명도 해주며 한동안 아이들을 돌보고난 간호원이 랑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웅어린이랑 윤미어린이랑 오늘 유치원교양실에 가서 뭘 배웠나요?》

《모양맞추기!》

《말꼬리잇기 배웠습니다!》

두 아이가 신이 나서 대답한다. 간호원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누나랑 같이 말꼬리잇기 한번 해볼가요? 누가 많이 대답하나 어디 보자요. 은성어린이도 생각나면 대답하세요.》

아이들이 제법 긴장해하고 어른들도 호기심속에 지켜보는데 간호원이 먼저 첫 단어를 불렀다.

《의사!》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기다리기라도 한듯 윤미가 제일먼저 대답한다.

《사진!》

다음번 대답은 뜻밖에도 은성이의 입에서 튀여나왔다.

《진찰!》

비록 생소한 입원생활에 마주쳐서인지 붙임성은 아직 부족해도 지지 않으려는 승벽심만은 여간 아니다.

해연이 은성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반가와하는데 두 아이에게 선코를 떼운 세웅이가 뒤늦게 목청을 돋군다.

《찰떡!》

그러는 세웅이에게 우습강스럽게 코살을 찡그려보이며 간호원이 말을 받았다.

《떡보!》

또다시 윤미가 잽싸게 뒤를 이었다.

《보물!》

은성이도 뒤질세라 따라선다.

《물병!》

누가 끼여들 틈도 없이 윤미와 은성이사이에 승벽내기로 말꼬리가 이어졌다.

《병원… 원장… 장수…》

세웅이 어머니가 안달아나서 아들애를 다우쳐댄다.

《얘 세웅아, 넌 입이 얼어붙었니?》

하건만 세웅이는 제꺽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지 고무공처럼 볼이 부풀어올라 씩씩거리기만 했다. 그러거나말거나 은성이와 윤미사이에서는 말꼬리가 계속 이어지고있었다.

《수도》, 《도라지》, 《지우개》…

다음순간 세웅이가 용수철마냥 튕겨일어나며 방안이 떠나가게 소리친다.

《개피떡!》

그러자 세웅이 어머니가 아들애의 볼을 두드려주며 맥빠진

칭찬을 했다.

《아유, 용타. 그래두 우리 세웅인 떡보가 돼놔서 떡이름 하나만은 곧잘 외우누나.》

그 바람에 어른들도 아이들도 웃음보를 터뜨리고말았다.

해연도 허리를 잡고 웃었다. 그러면서도 유치원 낮은반 아이들의 어휘소유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 저으기 놀랍고 기특하게 여겨졌다.

하기야 병원에까지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우리 나라가 아닌가. 옥류아동병원에 입원실, 치료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학교실이며 소학교실, 유치원교양실들이 아담하게 꾸려져있는 모습을 이미 TV로 본적이 있었지만 새삼스러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어 해연은 누구에게라 없이 혼자말처럼 외웠다.

《병원에 유치원교양실이 있으니 교양원도 있겠군요.》

간호원이 그 말에 당연하다는 표정을 보였다.

《물론이지요. 왜 교양원선생님뿐이겠습니까. 소학교선생님들도 있고 중학교선생님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받는 어린이들한텐 병력서만이 아니라 출석부도 따르게 되는걸요.》

병력서와 출석부.

무심히 외울수 없는 말이다.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도 어린 환자들은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동시에 받고있는셈이다.

윤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 우리 윤미를 병원에 입원시킬 땐 생각이 많았어요. 금방 글공부를 시작한 아이를 입원시켰다가 혹시나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면 어쩌나 해서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붙인 다음에 수술을 받게 할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한데 아동병원에 입원해서 애가 수술도 제대로 받고 또 훌륭히 꾸려진 유치원교양실에서 글공부랑 셈세기공부랑 지능놀이랑 재미나게 하는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세웅이 어머니도 감심한 어조로 말곁을 단다.

《나도 여기 와서 우리 애가 입원하기 전이나 다름없이 맘껏 뛰놀구 공부하는 모양을 보니 병원에 왔는지 유치원에 왔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옆호실에 수련이라구 소학교에 다니는 처녀애가 입원해있는데 입원한 첫날 복도구석에 가서 쿨쩍거리는게 아니겠어요. 알고보니 수련인 늘쌍 학급성적순위에서 맨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던 애였대요. 그러던 자기가 입원해있는 동안 다른 애들한테 뒤떨어질걸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서 그런다는거예요. 하지만 괜한 걱정이였지요. 아동병원 소학교실의 선생님이 수련이가 그간 배우지 못한 내용을 차근차근 다 가르쳐주구 보고싶어하는 책들까지 구해서 가져다주더라니까요. 정말이지 여기 의사선생님들의 정성도 극진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성의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가슴을 적시는 이야기들이였다. 정녕 복받은 우리 아이들이고 복받은 우리 부모들이다. 의사들과 교원들이 함께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병원, 아이들의 병뿐 아니라 마음속 한점 그늘까지도 말끔히 가셔주는 병원, 이렇듯 은정깊은 사랑의 병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이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고있는것이다.

해연이도 목젖너머로 뜨거운것을 삼키는데 간호원은 은성이의 침대에 견인치료기까지 설치하고나서야 방에서 나갔다.

해연은 간호원이 일러준대로 은성이를 재우려고 했다.

《은성어린이, 선생님이 곁에 있을테니 이젠 눈을 꼭 감고 푹 자자요.》

하건만 은성이는 웬 일인지 꼼지락거리며 쉬이 잠들지 못한다. 해연은 아마 담임교양원이 아닌 자기가 낯설어서 그럴거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잠재우려고 애썼다.

이윽해서야 간호원이 먹인 약이 효력을 내는지 은성이가 소릇이 눈을 감았다.

그런데 어마나, 글쎄 5분도 안돼서 손전화기의 착신음이 울리는것이 아닌가. 미처 손전화기의 종소리를 꺼놓지 못한 자신의 불찰에 입술을 깨물며 해연은 전화기를 들고 황황히 로대로 나갔다.

손전화기에서 유치원 원장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해연은 무등 반기며 은성이의 치료과정을 자초지종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자 원장이 말했다.

《아까 사지외과 과장선생님한테서 전화로 들었어요. 해연선생, 지금 은성이의 상태가 어때요?》

그제서야 원장이 은성이 일로 마음을 못놓고 이미 병원과 련계를 가졌다는것을 안 해연은 애가 금방 잠들었다는것과 처음 입원해서인지 아직 서먹해하는것같다고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해연의 이야기를 듣고난 원장은 뭔가 생각하는듯하더니 자기도 시간을 봐서 병원에 갈테니 그동안 은성이를 부탁한다고 이르면서 몇가지 류의사항을 강조하는것이였다.

원장의 전화가 끝난 다음에도 해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자기의 잘못으로 원장선생님은 물론이고 온

유치원에 걱정을 끼치고있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온몸이 졸아들었던것이다.

가책속에 모대기는 그의 눈앞에 로대앞의 정경이 비껴왔다.

정원에 주단처럼 펼쳐진 파릇파릇한 봄잔디들, 어머니의 팔에 떠받들려 비둘기를 날리는 어린이의 조각상… 그러고보니 두팔을 벌린 평양산원을 마주한채 지능놀이감으로 탑을 쌓아놓은듯 서있는 아동병원의 자태는 신통히도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아이를 련상케 한다.

불현듯 유치원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자기를 두고 철부지라고 나무라던 어머니의 말이 또다시 해연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때는 무심히 들어넘겼던 그 말이 오늘따라 자꾸만 되살아나는것은 무엇때문일가?…

해연은 호— 하고 무거운 숨을 쏟았다. 그러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곁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잠든줄로만 알았던 은성이가 어느새 로대에 나왔는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해연은 깜짝 놀라 애한테 물었다.

《아니 은성어린이, 왜 자지 않고 나왔어요?》

그 물음에 은성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온다.

《선생님, 울 엄마가 전화했나요?》

보아하니 해연의 손전화기착신음소리를 듣고 자기 엄마가 전화를 거는가 하여 따라나온 모양이다.

순간 전류 같은것이 해연의 가슴속에 찌르르 퍼졌다. 애들은 아플 때일수록 엄마를 찾는다더니 어린것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프면 저러랴싶었다.

그때에야 해연은 병원에 와서부터 지금껏 은성이의 얼굴

이 좀처럼 밝지 못했던 까닭을 깨달을수가 있었다. 다름아닌 엄마가 곁에 없어서였다.

제또래의 다른 애들은 다 엄마와 함께 있어 엄마앞에서 마음껏 응석을 부리고 재롱도 피우는데 자기 혼자 엄마없는 외토리이니 어린 마음에 오죽 서분했으랴.

그런것도 헤아리지 못한채 단지 은성이가 병원에 처음 입원한탓이라고만 생각했으니 정말 어린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교양원이 되려면 너무나 멀고멀었다고 해연은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다.

해연은 은성이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애한테 거짓말을 하는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린 마음에 실망을 안겨주는것은 더욱 내키지 않았다.

잠시 머밋거리던 해연은 별수없이 은성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래요. 방금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댔는데 인차 여기로 오겠대요. 인제 은성어린이가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엄마가 앉아계실거예요.》

그러자 시무룩해있던 아이의 얼굴이 대번에 맑게 개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해연의 얼굴도 밝아졌다. 자기가 애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었다고 생각하며 해연은 은성이를 달랬다.

《자, 어서 가서 자자요. 그래야 엄마를 빨리 볼수 있지요.》

해연은 은성이를 입원실에 데리고 들어가 자리에 눕혔다. 그가 해준 말때문인지 아이는 오래지 않아 잠이 들었다.

은성이를 잠재우고나니 자연히 해연의 생각은 은성이 어머니에게로 미쳤다.

은성이 어머닌 지금 뭘 하고있을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좀 늦어진다고 했는데 아직 일을 다 보지 못했을가? 은성이가 저리도 엄마를 기다리는데 빨리 왔으면 좋으련만…

은근히 밀려드는 조바심을 물리칠길 없어 해연은 살며시 로대로 다시 나갔다. 그리고는 은성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성이 어머니는 한참만에야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이세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 들을가 저어하듯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추어 묻는 그 어조에는 자식을 두고 마음썩이는 어머니의 속정이 깔려있었다.

해연도 말소리를 죽여가며 소곤소곤 얘기했다.

《아니,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은성인 치료를 마치고 방금 잠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원동무의 정성이 여간 아니예요. 벌써 입원해서 새 동무들도 생겼구요. 한데… 애가 엄마를 몹시 기다리는군요. 엄마가 보고파서 잠을 제대로 못이루기에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온다고 얼려서 겨우 재웠답니다. 저 은성이 어머니, 오시려면 아직 멀었는가요?》

왜서인지 은성이 어머니는 응답이 없다. 해연이 여러번 불러서야 난처해하는듯한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 아직은 제가 떠날 형편이 못돼서 그럽니다. 우리 은성인 워낙 응석꾸러기여서 종종 그렇게 속을 태운답니다. 아무튼 일을 보고 인차 가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은성이 어머니는 서두르며 제켠에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 몹시 바쁜 모양이다. 모르긴 해도 어머니된 심정에 여북 딱한 사정이면 그러랴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프면 병원에서 어련히 치료해주고 자식을 맡기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응당 키워주겠거니 하는 례사로운 그 태도가 다소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공기속에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공연히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세웅이 어머니나 윤미 어머니만 봐도 지금껏 자기들이 얼마나 큰 혜택속에 살고있는가 하는것을 이 병원에 와서 새삼스럽게 되새기고있지 않는가.

(은성이가 깨나기 전에 애어머니가 왔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을 하며 방으로 들어간 해연은 잠든 은성이의 침대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지간히 시간이 흘러서였다. 간호원이 소리없이 들어와 귀속말을 하는것이였다.

《선생님, 담당의사선생님이 병력서작성때문에 잠간 왔다가랍니다.》

《알겠어요.》

해연이 잠자는 아이의 포단을 여며주고 조용히 일어나 출입문으로 향하는데 간호원이 잊었다는듯 뒤를 달았다.

《참, 심장혈관외과의 정향순부과장선생님이 은성이를 잘 아시는것같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 아이상태를 자세히 물으시는걸 보니…》

《정향순부과장선생님이요?…》

얼떠름해서 이렇게 묻는 해연의 눈앞에 입원실로 오기전에 홀에서 보았던 녀의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 녀의사가 단 명찰에 정향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있었지. 한데 정향순부과장이 어떻게 은성이를 알가? 은성이 어머니와 아는 사이일가? 은성이 어머니가 인차 올수

없어 부탁을 했는지도 몰라. 혹은 우리 원장선생님이 정향순부과장과 아는 사이여서 부탁을 한건 아닐가?…

엇갈려 떠오르는 이런 의문부호들을 품은채 해연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담당의사에게로 향했다.

3

해연이 담당의사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복도의 끝쪽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웬 아이들인가 하여 미심결에 해연은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보니 갖가지 유희기구들이 갖추어진 방에서 아이들이 희희락락하며 뛰놀고있었다. 그제서야 해연은 세웅이 어머니가 말하던 아이들의 놀이터라는것을 알았다.

놀이말우에 올라 뚜거덕뚜거덕하며 쇠메장수흉내를 내는 아이도 있었고 신이 나서 미끄럼대며 그네를 타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애들과 내기하듯 스키주로를 본따 만든 활주로우로 썰매를 타고 지쳐내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깜찍하니 적재함까지 달린 뜨락또르를 몰고 놀이터가 좁다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해연이의 얼굴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교양원의 본능이 고개를 쳐들었다 할지, 정숙을 보장해야 할 병원에서 아이들이 지내 떠드는게 아닌가싶어 해연은 목청을 가다듬어 타일렀다.

《어린 동무들, 병원에서 너무 떠들면 안돼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들었는지 먹었는지 장난에 팔려 그냥 웃고 떠들고있었다.

한 간호원이 아이를 태운 놀이차를 밀어주다가 해연의 앞에 멈춰서며 귀띔했다.

《호호… 우리 병원이 처음이신가본데 입원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노는것도 다 치료의 한 과정이랍니다.》

해연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아닌게아니라 어느 애나 할것없이 《물방울옷》을 입고있는것을 보니 아동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고있는 아이들이였다. 그는 점직하니 웃으며 공연히 잔걱정을 한 자신을 변명하듯 간호원에게 말했다.

《저렇게 뛰노는걸 보니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애들인지, 유희장에 놀러온 애들인지 통 분간하기가 어렵군요.》

그러자 간호원이 상냥하게 설명을 덧붙였다.

《입원한 아이들만 여기 오는게 아닙니다. 2층에도 이런 실내놀이장들이 있는데 외래치료를 받으러 왔던 아이들은 거기서 뛰놀다가 갑니다. 우리 병원에 왔던 애들은 놀이장에서 얼마나 재미나게 놀고 가는지 아픈데도 없는데 아동병원에 또 가자고 조른다더군요. 자기 집주변에도 놀이장이랑 공원이랑 있는데 말이예요. 그러다보니 우리 아동병원에선 늘쌍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고넘칠수밖에요.》

자랑이 어린 간호원의 이야기가 해연의 가슴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넘치는 병원, 아이들의 웃음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 진정이야말로 사랑이고 교양원인 자기가 지녀야 할것이 아니랴.

해연은 간호원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금 아이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놀이장의 한켠에는 은성이또래 아이들의 무릎까지 찰만치 알락달락한 수지공들을 두툼하니 깔아놓은 유희칸이 따

로 꾸려져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물에 뛰여들듯 몽실몽실한 수지공더미우에 콩당 뛰여내리기도 하고 물놀이를 하듯 엎치락뒤치락하기도 하며 좋아라 깔깔대고있었다.

자기가 환자라는것도 잊은채 기운차게 뛰노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느라니 어느새 해연도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싶은 충동이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에게도 저렇듯 천진하게 웃고 뛰놀던 시절이 있었다. 뜻깊은 명절때마다 받아안던 사랑의 선물들이며 새 교복을 차려입고 기쁨속에 찍군 하던 사진들, 푸른 꿈 나래펴던 학교의 교정과 즐겁게 물장구를 치며 해저무는줄 모르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해수욕장…

어느덧 동심의 그 시절은 지나갔어도 해연이네 머리우에 비치던 따뜻한 해빛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머리우에 변함없이 비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진할줄 모르는 해빛, 언제나 이 땅을 밝게 비쳐주고 따사롭게 덥혀주는 그 해빛의 은혜로움을 저 아이들이, 아니 우리모두가 언제면 다 알수 있으랴.

이윽해서야 실내놀이장을 떠나 입원실로 향하는 해연의 눈앞에는 병원의 모든것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길을 끄는것은 벽면들을 장식하고있는 가지가지 그림들이였다.

다람이와 고슴도치도 있었고 령리한 너구리며 장난꾸러기곰 그리고 토끼교통안전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희소식을 안고 날아오는 까치도 보였고 출렁이는 바다물속에서 너울쩍거리며 헤염치는 도미며 보가지들도 보인다.

우리 나라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옮겨다놓은 그 그림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에게 즐

거움을 안겨주고 동심을 부풀어오르게 하는 그림들이였다.

비단 그림들만이 아니였다. 다양한 색갈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폭신폭신한 의자들도, 입원실들의 출입문마다에 낸 오각별모양의 고운 유리창들도 다 아이들의 동심과 기호에 꼭 맞게 갖춰져있었으니 실로 곳곳마다에, 구석구석마다에 아이들을 위해 기울인 지극한 정성이 속속들이 어려있었다.

가슴 무겁게 실려오는 그 지성을 새겨보며 해연이 복도를 걸어오는데 손전화기의 진동음이 울렸다. 뜻밖에도 어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가 아닌가.

《엄마, 웬 일이세요?》

해연이 의아해서 이렇게 묻자 어머니의 흐려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연아, 네가 맡아보던 애가 상했다는게 사실이냐?》

순간 해연은 흠칫 놀랐다. 어떻게 어머니까지 이 일을…

딸의 그런 생각을 알아차린듯 어머니가 터놓았다.

《옆집 철이 엄마가 그러더구나.》

그때에야 해연은 사연을 짐작할수 있었다. 옆집의 철이도 해연이가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있었던것이다. 모름지기 아들애때문에 유치원에 갔다가 이 일을 알게 된 모양이다.

할 말을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해연의 귀전에 어머니의 꾸지람소리가 울려왔다.

《얘 해연아, 너 왜 그리두 덜퉁하냐? 그렇게 일하려구 유치원교양원이 됐니? 내가 얼마나 일렀느냐? 교양원일이 단순해보여두 어머니일과 같아서 잠시두 마음을 늦춰선 안된다구 말이다. 그런데두 들떠서 채심하지 않더니 인제 무슨 낯으루 아이들앞에 나서구 애부모들을 대하겠느냐?》

어머니의 가차없는 책망에 해연은 그만 눈물이 핑그르

르 돌았다.

《나도 다 알아요, 엄마…》

해연이 울먹이며 이 한마디를 외우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아이의 상태를 물었다. 해연에게서 다 듣고난 어머니는 근심에 싸인 어조로 말했다.

《손목을 상했다니 어린게 얼마나 아팠겠냐. 그런 땐 다친 부위에 감탕찜질이나 모래찜질을 해주는게 좋은데… 하기야 아동병원에 입원했으니 걱정할게 뭐겠냐만 아무쪼록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교양원인 네가 제 본분을 잊어선 안된다. 알겠니?》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몇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이고나서야 전화를 놓았다.

오늘따라 어머니의 그 지청구가 고깝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 어머니의 말대로 난 참말 철부지였어. 교양원의 본분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나 같은게 어떻게 아이들앞에 나설수 있담.)

아이들에게 낮과 밤을 이어 온갖 지성을 다해가는 아동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원들을 마주보기가 부끄러웠다.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사랑의 궁전안을 거닐기가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해연은 자신을 모질게 채찍질했다. 그럴수록 어머니가 고마왔다. 딸자식을 뼈아프게 질책하는 그 진심이며 은성이를 친살붙이처럼 념려하는 그 인정이 고마왔다.

어찌 어머니뿐이랴. 이웃처럼 친절한 세웅이 어머니도 그리고 윤미 어머니도 고마왔다. 그렇듯 한집안식구들같은 마음들을 생각해서라도 은성이가 하루빨리 완치되여야 할텐데…

문득 해연은 은성이가 그새 깨여나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가 깨나면 엄마부터 찾을텐데…)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은성이가 얼마나 허전해할가 하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물론 애어머니가 아니라도 고마운 사람들이 혈육의 정으로 은성이를 돌보고있지만 그래도 엄마를 보고파하는 아이의 심정이야 어데 가랴. 은성이 어머닌 지금쯤 어데 있을가? 이제라도 애어머니가 들어서지 않을가?…

해연은 행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조이며 또다시 전화로 은성이 어머니를 찾았다. 하건만 은성이 어머니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몇번이나 신호를 보냈건만 도무지 응답이 없었다.

은연중 야속한 생각까지 들었다.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해도 어쩌면 제 자식에게 이렇게 무관심할수 있담. 은성이가 상한지 여러시간이 돼오도록 그리도 시간을 낼수 없단 말인가. 이제나저제나하고 엄마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어린것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다못해 전화라도 자주 해줄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해연은 인츰 자신을 다잡았다. 아니, 은성이 어머닌 필경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여직 못오고있을거야. 그럴 때일수록 본분을 잊어선 안된다고 신신당부하던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해연은 총총히 입원실로 돌아왔다.

그가 방에 들어서니 은성이는 아직도 쌔근쌔근 자고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던 해연은 아이의 머리맡에 낯선 물건이 하나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조그마한 어린이용주산이였다. 앙증맞게 생긴 빨

간 그 주산은 분명 해연이 담당의사를 만나러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없던 물건이였다.

《어마나, 이 주산은 웬건가요?》

은성이가 깨날가봐 소리를 낮추어 입원실사람들한테 묻는 해연에게 세웅이 어머니가 대답했다.

《오, 그 주산! 아까 담당간호원동무가 가져다놓더군요. 들으니 심장혈관외과 부과장선생님이 은성이한테 보내는거라던지…》

해연은 의아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 정향순부과장선생님이?…)

그러고보니 정향순부과장이 은성이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묻더라던 담당간호원의 말이 생각났다.

대체 정향순부과장은 은성이와 어떤 관계일가? 왜서 은성이 일로 은근히 마음쓰면서도 한번 들려보지 못하는걸가? 입원한 애한테 느닷없이 주산을 보내온 까닭은 무엇일가?…

해연이 착잡하게 갈마드는 생각을 더듬으며 은성이의 침대곁에 앉아있느라니 어느덧 로대에 비껴들던 해볕이 석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마침내 은성이가 잠에서 깨여났다. 그런데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던 은성이가 머리맡에 놓여있는 빨간 주산을 보더니만 얼른 일어나 앉으며 환성을 올리는것이 아닌가.

《야, 주산! 선생님, 울 엄마가 왔나요?》

《어머니?…》

해연은 어안이 벙벙해서 반문했다. 그러는 해연에게 은성이가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약속했거든요. 새 주산을 가져오겠다구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해연은 얼떠름해진 눈길로 은성이를 바라보았다.

은성이가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하며 주산을 다루기 시작했다. 주산을 무릎우에 올려놓더니 오른쪽엄지손가락으로 한알씩 올리면서 《하나, 하나…》 하고 외운다. 그리고는 같은 식으로 외우기를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올렸던 주산알을 둘째손가락으로 내린다. 신이 나서 동작을 되풀이하는 은성이의 솜씨는 퍼그나 익숙한것이였다. 세웅이도 윤미도 어머니들도 은성이의 주산솜씨를 호기심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해연은 은성이가 주산놀이의 기초훈련동작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최근에 와서 주산이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좋은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아이들속에 주산놀이가 널리 보급되고있었고 아마 그래서 은성이 어머니도 자식에게 새 주산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모양이다.

한데 담당간호원은 정향순부과장이 주산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정향순부과장이 은성이 어머니와 아는 사이인게 틀림없어. 아니면 혹시?…

해연은 이내 도리를 저었다. 설마하니 이 병원에서 일하는 정향순부과장이 은성이 어머니이기야 할라구. 부과장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지척에 있으면서 잠간만이라도 입원한 아들애를 보러 오지 않으랴.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이곳에 있다면야 그토록 엄마를 기다리는 은성이가 왜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랴.

허나 다음순간 해연의 눈앞에 수술이 있다며 환자애의 어머니를 데리고 급히 가던 녀의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많은 어린애들의 치료를 책임진 그가 아닌가. 그러니

만치 오늘 본것처럼 바쁜 수술이라도 제기되면 아무리 자식이 가까이에 입원해있어도 틈을 내기가 쉽지 않을거야. 더우기 환자들에 대한 뜨거운 헌신으로 온 나라에 소문난 이곳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이 아닌가. 나어린 은성이도 그러한 어머니에게 인제는 습관이 되였는지 모른다.

아무튼 얼굴도 모른채 전화로 만났을뿐인 은성이 어머니가 어딘가 퍽 가까운 곳에 있다는 예감이 드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해연이 궁금증을 못이겨 은성이에게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려는데 출입문쪽에서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은성이가 이 방에 들었나?》

돌아보니 후덕스러워보이는 나이지숙한 녀인이 방에 들어서고있었다. 은성이가 대번에 반겨부른다.

《큰엄마!》

큰엄마라구? 은성이 어머니대신 큰어머니가 먼저 왔는가보지.

해연이 얼떨결에 일어서는데 큰어머니가 은성이에게로 서둘러 다가왔다.

《오, 은성이로구나. 세게 다쳤니? 원 녀석두, 그만큼 덤비면 안된다고 일렀는데두 끝내 일을 쳤구나. 쯧쯧…》

가벼이 혀를 차며 은성이의 상한 팔을 쓰다듬던 큰어머니는 뒤늦게야 은성이의 침대곁에 서있는 해연에게 눈길이 미쳤는지 다정히 인사말을 하였다.

《아이구, 교양원선생인가보군요. 은성이 엄마한테서 얘길 다 들었어요. 정말 고마와요.》

해연의 얼굴은 금시 홍당무가 돼버렸다. 그는 난감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큰어머니에게 말했다.

《별말씀을 다… 제가 구실을 못한탓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자 큰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구실을 못한건 바로 나예요. 은성이 아버진 출장중이구 애엄마도 바쁜 사정이 생겨 늦어지는데 이 큰엄마라도 빨리 와봐야 하는걸 그러지 못해서 안됐어요.》

이때 은성이가 끼여들었다.

《큰엄마, 울 엄만 안오나요?》

아이의 물음에 큰어머니가 성큼 대답해주었다.

《이제 인차 온다. 실은 엄마도 지금 아동병원에 있단다. 오늘 너랑 같은또래의 애가 갑자기 중한 수술을 받게 돼서 엄마가 늦어진거란다.》

은성이 어머니가 지금 아동병원에?… 은성이또래의 애란 누굴가?… 그리고 중한 수술이란건?…

큰어머니가 한 말들이 해연의 머리속에서 종잡을수 없이 맴돌아쳤다.

그러는데 또다시 출입문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과일구럭을 손에 든 유치원 원장이 이마의 땀을 훔치며 들어선다.

《원장선생님!》

이렇게 부르며 제일먼저 반기는 사람은 해연이였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기라도 하듯 눈물까지 글썽해지는 그를 보고 원장이 웃었다.

《호호, 해연선생은 아직 어린애같다니까. 내가 빨리 와본다는게 그만 늦었어요. 처음 이런 일을 당해서 혼났지?》

해연의 등을 두드려주며 이렇게 말하던 원장은 은성이 큰어머니를 보자 대뜸 반색을 했다.

《아니! 원장선생님도 와계셨군요.》

큰어머니도 스스럼없이 인사를 받는다.

《우리 은성이가 입원했는데 큰엄마가 응당 와봐야지요.》

친숙하게 말을 나누며 은성이의 치료상태를 살펴보는 두 녀인을 해연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큰어머니도 원장이라고?… 무슨 원장일가? 유치원 원장? 아니면 병원 원장? 혹시 은성이 큰엄마라는 저이가 이 병원 원장은 아닐가?… 가만, 큰어머니의 말이 은성이 어머니도 지금 아동병원에 있다고 했지. 분명 중한 수술때문에 늦어진댔어. 그러면 은성이 어머니는 필경…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예감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해연의 가슴을 점점 더 세게 두드리고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불현듯 은성이의 입에서 반가움에 넘친 부름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방안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출입문쪽으로 향해졌다.

4

눈같이 흰 위생복을 입은 녀의사가 입원실로 들어서고있었다. 아니나다를가 정향순부과장이였다.

해연은 자기의 짐작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녀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리도 궁금하던 은성이 어머니였다. 한 자식의 어머니이기에 앞서 수많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건일군…

자리에서 뛰쳐일어난 은성이가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오, 은성이로구나.》

녀의사가 은성이를 보며 밝게 웃는다.

그런데 웬 일인가. 정향순부과장이 비켜서며 뒤따라 들어서는 한 녀인을 앞에 내세우는것이였다.

어리둥절해진 해연의 눈앞에 녀인의 모습이 안겨왔다.

갸름한 얼굴, 피로가 어린듯하면서도 깊고 따스한 눈빛… 뜻밖에도 수술동의서에 수표하기 위해 정향순부과장을 따라가던 녀인이 아닌가. 엄마를 부르며 한달음에 달려간 은성이가 다름아닌 그 녀인의 품에 덥석 안긴다.

해연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저 녀인이 은성이 어머니라니?… 그럼 심장병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온 애는 대체 누군데? 혹시 은성이 말고 또 다른 자식이 있는걸가?…

해연이 아연함을 금치 못하는데 좋아라 어리광치는 은성이를 붙안고 붕대를 감은 팔목을 조심조심 어루만져보던 녀인이 잠시후 유치원 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해연에게로 다가오는것이였다.

《선생님,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은성이 어머닙니다. 그새 절 대신하느라 얼마나 수고많으셨겠어요.》

해연의 손을 꼭 잡은 녀인의 얼굴에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해연은 어쩔바를 몰라하며 황황히 말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은성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잘못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은성이 어머니가 바삐 손사래를 친다. 그러는 그들을 보며 방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해연은 의문을 풀길 없어 은성이 어머니에게 주저하며 물었다.

《저… 은성이 어머니도 오늘 어린애를 데리고 온것같던데 아마 은성이한테 형제가 있는가 보지요?…》

그 물음에 은성이 어머니는 빙그레 웃더니 대답했다.

《그앤 제가 담임한 원아랍니다.》

《예?…》

해연이 영문을 몰라하자 곁에 있던 유치원 원장이 설명해주었다.

《내가 미처 해연선생에게 말해주지 못했군요. 은성이 어머닌 애육원교양원이예요. 그리고 은성이가 큰엄마라고 부르는 이분은 애육원 원장선생님이시고요.》

순간 해연은 심장이 쿵 울리는듯한 충격을 받았다.

은성이 어머니도 나와 같은 교양원이라니? 아니, 부모없는 원아들을 맡아 키우는 애육원교양원이라면 유치원교양원보다 더 많은 품과 지성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귀전을 세차게 울리는 맥박소리사이로 애육원 원장과 은성이 어머니가 나직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미향이는 어때요?》

《지금 자고있습니다. 부과장선생님 말씀이 수술결과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요. 오늘 현희선생이 미향이때문에 수고가 많았지만 난 정말 섭섭해요. 왜 은성이가 다쳤다는걸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성이가 어머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미안합니다. 실은 은성이 일을 말하면 미향이의 치료를 다른 교양원한테 맡길것같아서 그랬습니다. 미향이도 은성이와 다를바없는 제 자식이 아닙니까.》

《…》

그러니 자신이 담임한 원아를 돌보느라 친자식이 같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인츰 와보지 못했단 말인가.

갑자기 자기의 온몸이 볼꼴없이 졸아드는듯한감을 느끼

며 해연은 못박힌듯 움직일줄 몰랐다.

얼마후 애육원 원장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은성이 어머니가 담임한 반에서 미향이라는 원아가 불시에 실신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애육원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미향이는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있었는데 가끔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군 하여 애육원에서 류다른 관심을 돌리던 애였다.

그 시각 은성이 어머니는 아들애가 다쳤다는 소식을 받고 해연과 금방 전화를 하고난 참이였다. 미향이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은성이 어머니는 애육원에서 알면 만류할것같아 원장에게 은성이 일을 알리지 않은채 실신한 원아를 차에 태우고 아동병원으로 향했다고 한다.

처음에 은성이 어머니는 은성이도 아동병원에 갔으니 미향이를 돌보면서 틈을 내여 아들애한테도 인츰 가보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일은 예상과 달리 벌어졌다. 심장혈관외과에서는 미향이의 선천성심장병이 중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체없이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던것이다.

미향이가 심장수술을 받게 되였다는것을 안 순간부터 은성이 어머니는 더이상 아들애를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여느 수술도 아닌 심장수술을 어린애가 꽤 견디여낼수 있을가. 아들애한텐 늦게 가더라도 지금 자기는 미향이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은성이 어머니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가슴을 조이며 잠시도 수술실앞을 떠나지 않았고 수술이 끝난 뒤에도 미향이곁을 뜰줄 몰랐다. 그러다가 조금전에 애육원에서 원장과 교양원들이 교대하러 와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로 왔다는것이였다. …

애육원 원장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정향순부과장이 뒤를 다는것이였다.

《처음엔 저도 은성이 어머니를 미향이 어머니인줄로만 알고있었답니다. 한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은성이 어머니가 은근히 속을 졸이면서 제게 터놓더군요. 자기 아들애도 오늘 아동병원에 왔는데 지금쯤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고 말이예요.

전 그때에야 사연을 알고 펄쩍 놀라서 은성이 어머니를 떠밀었습니다. 수술도 끝났는데 빨리 아들애한테 가보라고요. 하지만 은성이 어머닌 인제 은성이한테 가면 애가 엄마를 붙잡고 놔주지 않을거라면서 전화를 걸어보고싶어도 애한테 엄마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눈치를 보일가봐 그러지 못하니 저더러 자기대신 은성이 상태를 알아봐줄수 없겠는가고 부탁하는것이였어요. 미향인 우리가 돌볼테니 근심말고 어서 가보라고 제가 거듭 말했지만 은성이 어머닌 방금 수술을 마친 애를 놔두고 갈수 없다고, 이런 때 미향이곁엔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면서 끝내 도리를 흔들더군요. 교양원선생님도 은성이 어머니의 그 심정을 리해해주리라 믿어요.

별수없이 제가 사지외과에 전화를 걸어 은성이 상태를 알아봤답니다. 은성이 어머니가 당부한대로 애어머니이야기는 하지 않고 말이지요. 마음같아선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은성이한테 직접 가보고싶었지만 저 역시 바쁜지라 그러기가 쉽지 않더군요. 참 은성아, 너 주산을 받았니?…》

정향순부과장이 이야기를 멈추고 은성이에게 물어보자 은성이가 뽐내듯 주산을 들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모습에 부과장은 《그래, 어머니가 보내준거란다.》

라고 하며 대견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다시금 이야기를 계속했다.

《은성이 어머니가 저 주산을 간수하고있기에 물었더니 애가 주산놀이에 취미가 있는것같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속했다더군요. 저녁에 꼭 새 주산을 가져오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은성이의 서운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가 해서 어머니가 마련해준 새 주산을 애한테 전해주게 했어요. 저도 어린애들을 치료하는 보건일군의 한사람이지만 오늘 은성이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되는게 많았습니다. …》

해연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달아왔다. 그제서야 그는 모든것을 리해할수가 있었다.

왜서 은성이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 치료실앞까지 왔다가 종내 들어가지 못했는지, 어찌하여 전화를 하기 주저했고 눈이 까매서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어린 자식의 마음을 그리도 외면했는지…

그런줄도 모르고 애한테 무심하다고 은성이 어머니를 일시나마 섭섭하게 여겼던것을 생각하니 해연은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은성이한텐 참 좋은 어머니가 있구나.》

유치원 원장이 은성이를 품에 안으며 하는 말이였다. 세웅이 어머니도 감동에 젖은 어조로 덧붙인다.

《정말 그래요. 어머니들이란게 제 자식부터 생각하기가 일쑤인데 자식에게 쏟을 정까지 원아에게 깡그리 바치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그러자 은성이 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부과장선생님이랑 아동병원의 모든 의료일군들이 그렇게 하고있고 오늘 우리

은성이때문에 애쓴 유치원 원장선생님이랑 교양원선생님이랑 다 그렇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극한 사랑의 품이 우리 아이들을 품어안고있습니까. 친부모들도 대신 못할 웅심깊은 그 뜻을 따르려면 전 아직 너무나 멀었습니다. …》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숨결이 후더워지는데 애육원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지금도 몇해전 6.1절의 그날이 어제처럼 생각되는군요. 그때 우리 애육원은 사람들의 눈길이 덜 미치는 곳에 어느 유치원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잡고있더랬지요. 그날은 국제아동절이라 옆에 있는 유치원마당에선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운동회를 하며 명절을 즐기는 소리가 떠들썩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원아들한테야 명절을 함께 쇠줄 부모들이 없지 않나요. 단지 교양원들이 부모가 돼서 원아들과 명절을 보내다나니 이웃유치원에 비하면 한적할수밖에요.

그런데 하루해가 저물어갈무렵에 뜻밖에도 우리 원수님께서 애육원에 찾아오실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애육원마당에 들어서시는 원수님을 뵈옵는 순간 우린 너무 기뻐 신도 채 신지 못한채 달려나가 그이께 인사를 올렸어요. 그러던 우린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어요. 글쎄 원수님의 옷깃에도, 구두에도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게 아니겠어요.

후에야 알게 되였지만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애육원에 오시기 전에 무더운 온 하루동안 여러 중요대상 건설장들을 돌아보시였다는것이였어요. 원수님의 겹쌓인 그로고도 헤아리지 못한채 우린 그이의 팔에 매달려 철없이 좋아하기만 했으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런데도 원수님께서는 조금도 우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6.1절을 맞는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어서 애들한테로 가자고 하시는것이였어요.

저저마다 달려와 품에 안겨드는 원아들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던 원수님의 모습이 오늘도 눈에 선해요.

자신께서는 온종일 무더위에 땀을 흘리시고도 몸소 가져오신 시원한 요구르트를 원아들에게 나눠주시고 요구르트통에 빨대를 꽂아달라고 응석부리는 원아의 청도 즐겁게 받아주시던 원수님의 자애에 넘치신 그 모습을 우린 평생 잊지 못할거예요.

그날 그이께서는 애육원식당에도 들리시여 원아들이 밥먹는 모습을 오래동안 보아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음식도 여러가지로 맛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시며 그 방법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어요.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하고싶은 부탁은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어 그들의 마음속에 단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도록 키워달라는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답니다.

그토록 진정에 넘친 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다음해 우린 옥류아동병원처럼 크고 멋있게 일떠선 새 애육원으로 이사를 갔고 국제아동절이면 부모들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을 담장너머로 부럽게 바라보던 원아들이 오늘은 온 세상의 부러움을 받게 되였어요.

어찌 원아들뿐이겠어요. 수백만의 아이들이 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막대한 부담도 고생도 기꺼이 짊어지실것이라고 하신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 온 나라 아이들이 안겨있지 않나요.

옛날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게 어머니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억만자루의 품을 바쳐가시는 그이의 헌신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무거운 자책이 어린 애육원 원장의 그 이야기에 유치원 원장도, 정향순부과장도 생각에 잠겨 머리를 끄덕인다.

해연은 쿵쿵 높뛰는 심장의 울림을 듣고있었다.

억만자루의 품…

애육원 원장이 하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여보는 해연의 눈앞에 아동병원에 와서 본 가슴뜨거운 광경들이 다시금 비쳐왔다. 참으로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다속의 룡궁을 통채로 떠옮겨온듯싶은 사랑의 궁전이였다.

어찌 옥류아동병원뿐이랴. 나라의 곳곳에 새롭게 일떠선 육아원들과 애육원들이며 초등학원들과 중등학원들 그리고 야영소들과 소년궁전들… 얼마나 많은 사랑의 궁전들이 이 땅의 명당자리들에 무지개처럼 눈부시게 솟아있는가.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는 어버이의 정을 전하며 황금해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고 새 교복이며 《민들레》학습장, 《소나무》책가방과 《해바라기》학용품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뜨거운것을 삼킨다. 그 값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무상치료의 혜택으로 무럭무럭 자라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나래를 펼쳐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땅에 차넘친다.

유족하고 편안한 나날에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아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곤난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어버이께서 결사의 헌신으로 지켜내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이기에 이렇듯

우리의 가슴을 절절히 울려주는것이 아니랴.

문득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해연의 마음속에 새삼스럽게 안겨왔다.

그러고보면 우리곁에는 얼마나 많은 은성이 어머니며 정향순부과장과 같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가. 어려운 속에서도 부모잃은 아이들의 혈육이 되여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며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을 등에 업고 수년세월 학교길을 오가는 고마운 선생님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후대교육사업에 진정을 바쳐가는 미더운 교육자들과 일군들…

그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것은 한결같이 우리 원수님께서 심어주신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이거늘 정녕 그 뜻으로 심장을 끓일 때라야만 교양원의 참된 본분을 다할수 있는것이 아니랴.

《이것 봐. 토끼가 거부길 단숨에 따라앞섰어.》

《아냐. 이제 토끼가 잠든새 거부기가 토끼를 따라앞서는거 보라.》

한켠에서 은성이가 세웅이랑 윤미랑 속살거리는 소리였다. 유치원 원장이 가져온 과일을 나눠먹으며 그림책을 들여다보는 그애들의 얼굴에는 환희의 웃음이 쟁글거리고있었다.

해연은 정찬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가. 저애들은 아직 알지 못하리라. 이 지구상에는 수백명의 아이들이 바다물속에 수장되여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랭담한 사회도 있다는것을, 때없이 날아드는 총탄과 포탄에 꽃망울같은 육체가 찢기여나가고 자식잃은 어머니들의 피절은 곡성이 그칠줄 모르는 눈물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낯설은 이역땅에서 정처없이 피

난의 길을 헤매는 불쌍한 아이들도 있다는것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머리우에는 영원토록 맑고 푸른 하늘만이 펼쳐져있으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대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 민족만대의 보검을 억척으로 벼려가시는 절세의 위인께서 계시기에, 온 나라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위대한 어버이께서 계시기에…

어느 방에선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저도 모르게 해연도 입속으로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시】

승리의 10년

백 광 명

벅차게도 흘러왔구나
힘차게도 달려왔구나
어버이장군님 유훈을 안고
원수님 받들어 줄기차게 달려온
내 조국의 10년 승리의 10년이여!

자랑차게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 바라보니
가슴에 뜨겁게 어리여와라
이 땅의 만난시련 헤치시며
이 세상 험로역경 다 쳐물리치시며
조선을 세기의 하늘높이 떠올리신
그이 로고의 10년세월이…

갑자기 들이닥친 큰물
기승부리는 물의 광란이
순간에 마을과 집들을 덮쳤어도
그이의 품— 따뜻한 집이 있었기에
인민은 한순간의 그늘도 몰랐다

온 세계를 휩쓴 악성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 혈육을 잃고
한숨과 절망, 비애에 울 때
그이의 사랑으로 덕과 정을 나누며
세상이 보란듯이 사회주의화원을 꽃피웠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알의 모래알로 뿌려진대도
한이 없다 하신 우리 원수님
수령님들을 받들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겠다 하신 그 말씀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 흘리고 흘리였던가

돌이켜보면 시련은 많았어도
그이 따라온 길은 승리의 길
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도
횡포한 자연과의 전쟁에서도
오직 승리만을 력사에 아로새겼다

그이를 따르는 충성의 한마음
조국에 피끓는 열정을 다 바치며
사회주의락원을 꽃피웠고
누구도 못다칠 불패의 성새로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왔어라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하신 우리의 원수님

그이를 따르며 인민은
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적위훈 떨쳤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우리 공화국
그 존엄을 보란듯이 떨치여왔다

오, 10년
그 나날 우리 인민의 심장에
반석같이 다져진
우리 원수님만 계시면 이긴다
그 신념 그 의지를 억척기둥으로 세워준
조선의 10년이여

부러워하라 세계여
원수님따라 걸어온 승리의 10년
그 10년을 년년이 승리로만 이어가려니
김정은조선은 영원한 승리
승리의 세월로 무궁번영하리라

【서사시】

위대한 후대사랑을 노래하노라

김 영 일

영광의 10년을 노래하려니
마음은 격정으로 설레이여라
격동과 변혁의 10년
승리에서 승리로 빛나는 시대였어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위대한 위민헌신의 10년
그 10년을 하루같이
인민은 어버이사랑속에 살아왔거니

우리의 가슴 뜨겁게 하는
위대한 10년의 무수한 날과 달들
감격의 그 나날들에 새겨진 어버이사랑
무한대한 저 하늘과 같아
인민의 마음 바다처럼 설레이여라

노래하리라

하늘과 같은 어버이사랑
그 하늘에서 하나의 별을 골라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후대사랑을

1. 약 속

— 2015년 6월 1일 오전

6월은 첫날부터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명절
날과 날을 이어 기쁨속에 원아들이 살라고
산과 들에 꽃들도 활짝 피였네

그 명절에 기쁨을 더해주시려
먼길을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신의 피로는 감감 잊으시고
궁전같은 집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신다

아담하게 일떠선
다정한 자매인양 어깨나란히 서있는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볼수록 다시 볼수록 마음에 드시여

정말 황홀하다고
이런 멋쟁이 아동궁전은
세상에 다시없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다

육아원, 애육원에 높이 모신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르시며
우리 원수님 말씀하시여라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원아들이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다고

기뻐하신다, 그이께서
아이들이 좋아하겠다고
나무와 꽃들도 구색에 맞게 심어놓으니
꼭 공원속에 들어와있는것같다고

— 궁궐같은 새집을 보시였으면
우리 수령님들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습니까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수령님들의 평생소원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소

그이의 말씀에
구내의 나무들도 기쁨에 설레이고
아침이슬을 머금었던 꽃들도
이슬을 털며 한껏 그이를 우러르는듯

경애하는 원수님 우러르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인 성민
그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라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하여

그이께서 수백리길을 오시였으니

아침에 떠나셔도 될 길
그이께서는 성민에게 재촉하셨다
이른새벽부터
어서빨리 떠나자고

오늘이 6월 1일이라고
오늘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을 하자고
아이들과 약속을 하였는데
다시한번 미흡한 점이 없는가 보시겠다고

— 경애하는 원수님
그러면 수백리길을 에돌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 그래서 빨리 떠나자는거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면 되지 않겠소
어서 떠납시다

그렇게 떠나온 길
아이들과 하신 약속은
그이께는 어길수 없는 신성한것이여서
아이들에게 안겨줄 선물은
한점 티없는것이여야 해서

원수님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바치신 로고 그 얼마이랴
한겨울 강추위속에
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찾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속에 솟아난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이 탈 배그네도
손수 밀어보시며
좋아할 그 모습 그려보시는가
원수님 존안에는 그윽한 미소

《미래》라는 글을 새긴
원아들이 타고 놀 미끄럼대도 보시며
희망찬 미래에로 달려갈
그들의 앞날도 그려보신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린 현관홀
알락고양이가 첼로를 타고
토끼형제들이 춤을 추고
아이들이 새를 타고 하늘을 난다

보육실, 잠방, 교양실
어디나 흠잡을데가 없다고
우리 원아들이 좋아하겠다시며
원수님 말씀하시여라

— 오늘 준공식을 합시다
이제는 마음이 놓이오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되였구만

— 예, 알았습니다

— 중앙과 도의 간부들도 모두 참가하여
새집들이하는 원아들을 축하해주게 합시다
새집들이야 손님이 많을수록 좋지
이제는 마음놓고 떠나도 되겠소

— 아니 그럼 여기까지 오셨다가…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은 끝이 없지만
궁궐같은 육아원, 애육원을 보니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라고
원수님 뜨겁게 말씀하시여라

— 준공테프는 아이들이 끊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두고두고
어른이 되여서도
6월 1일 오늘을 추억할거요

6월 1일은 국제아동절
아이들을 위한 명절이 있다고 하여
이 세상 아이들이 모두
자기들의 명절을 즐기는것은 아니리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 아이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그 품속에 사는 아이들이
6.1절을 뜻깊게 추억할 아이들이

우리 원아들에게
세상에 부럼없을 새집을 지어주시고도
새집들이하기 전에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신 어버이

친부모인들 이보다 더하랴
원아들에게 줄 선물이라시며
준공식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게 없는가 보시려
수백리 먼길을 에돌아오신 원수님

성민의 가슴은 뜨거움에 설레이였다
아이들아 복받은 아이들아
너희들은 얼마나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겨있느냐

우리 원아들, 우리 아이들아
이 세상 만복을 다 안은 아이들아
노래를 부르거라 행복의 노래를
이제는 이 세상 더는 바랄것이 없으리

감격으로 터질듯한

성민의 심장의 고백
그러나 그도 아직은
어버이 그 사랑을 다는 알수 없었거니

바다와도 같은 어버이사랑
동해기슭의
원산육아원, 애육원으로는
행복과 기쁨의 물결이 계속 파도치고있었다

2. 원수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궁전으로

— 2015년 6월 1일 오후

동해기슭을 끼고 달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야전승용차
만경창파 설레이는 동해의 물결
그 무슨 사연을 속삭이며 파도쳐오는가

맞받아 불어오는 바람도
그이께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이는듯
전선길에서 쌓인 피로
잠시라도 풀고 가시라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이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이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은
다 자신의 친아들, 친딸들이라고
정담아 말씀하시며
자신은 아들딸부자라고 하시지 않으셨던가

아이들과 계실 때 제일 기뻐하시는 그이
원아들의 재롱도 즐거이 받아주시며
혁명하는 기쁨을 한껏 느끼실
성대한 준공식장을 뒤에 두고
전선길을 달리고계시거니

아이들의 웃음을 보는것보다
그 웃음을 지켜주시려
우리 원수님 가시는 전선길
성민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는다

바쁘시다 우리 원수님
너무도 바쁘시여
누구나 다 깊은 잠에 든
이른새벽 길을 떠나시여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야속하다 야속하다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이여
정녕 그 위대한 불멸의 려정에
단 한순간만의 휴식마저
우리 원수님께 드릴수 없단 말인가

지금쯤은 아이들이 뭘 하고있을가
야전차는 앞으로 달려도
그이의 생각은 원아들에게만 가있어
원수님 우러러 성민은 말씀드렸다

— 아마 지금쯤은
꽃으로 단장한 뻐스를 타고
원산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새집들이하러 갈 시간입니다

궁궐같은 육아원, 애육원을 보시며
강원도에 경사가 났다는 그이의 말씀에
도의 일군들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
정말 자기들은 한 일도 없이
원수님사랑만을 받아안았다고

그 사랑을 받들어
원아들을 친자식들처럼 돌봐주고
원아들을 꽃수레에 태워
궁궐같은 새집에 입사시키겠다고

성민의 간절한 생각
원수님 그 모습 보시였으면
한순간 피로를 푸시련만
그러나 가슴을 치는 그이의 말씀

—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새집에 들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싶었소
정말 아쉽거든 아쉬워

가셔야 할 전선길은 끝이 없고
원아들 위하시는 그이의 생각도 끝이 없어
그이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신다
지금쯤은 원아들이 뭘 하고있을가

전선길을 달리시면서도
원아들의 생각을 못놓으시는 그이
성민은 그이를 우러러
뜨거운 심정으로 말씀드렸다

— 지금은 준공식이 끝나고
원아들이 종합유희실이나 지능놀이실
물놀이장에서 놀고있을 시간입니다

—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구만
좋아할 원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내 마음이 흐뭇하오

그이께서는 말씀하신다
원아들이 잘 침대를 보니 아늑하고
보기도 좋았다고
교양실의 의자도 높이가 맞춤했다고

성민은 그만 목이 메여
더 다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저 멀리 원아들의 미래를 그려보시는
그이의 말씀은 계속된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육아원, 애육원과 나란히 건설하는데
육아원에서 중등학원까지
아이들이 불편없이 다니게 되였으니
참 리상적이라고

보육원, 교양원, 교원대렬을 잘 꾸려주어
그들모두를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하신다

그들속에서
이제 로력혁신자도 나오고
근위부대의 병사도 나오고
이름있는 과학자, 예술인도 나오고…

그이의 말씀은 계속된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키우시겠다고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바칠것이라고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시여라

사랑에 넘친 그이의 말씀
확신에 넘친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성민은 심장으로 웨쳤다
이 세상 제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분

가슴속 넘치는 뜨거운 격정
원아들은 멀리 있어도
그이는 원아들과 함께 계셨다
원아들의 오늘의 행복만이 아닌
래일의 희망까지도 안고계시는 원수님

아이들아
듣느냐 어버이의 이 말씀을
너희들의 밝은 미래, 밝은 앞날이
눈앞에 곧바로 환하게 펼쳐져있다

전선길이여 이야기하라
굽이굽이 그 길에 새겨진 숭고한 사랑
위대한 후대사랑이여
너희들의 꿈을 지켜
아버지는 전선길 가신다

3. 태양이 솟는다

— 2015년 6월 2일 이른아침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인가
창가마다에 불빛 환한
육아원, 애육원을 바라보시며
우리 원수님 서계신다

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시고
아쉬운 걸음 떼신지가
불과 하루도 안되는데
우리 원수님 또다시 오셨다

어버이의 다심한 마음인가
원아들에게 새집을 지어주시고도
손수 구석구석 돌아보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가

먼발치에서라도
원아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싶으시여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길에
또다시 들리신 어버이

정녕 그 사랑은

마를줄 모르는 정갈한 샘물인가
잠들줄 모르는 바다인가
성민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다

누구도
다음날 이른새벽 다시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
누구도 마중하는 사람없어
급히 들어가 알리려는 성민

조용히 만류하신다
우리 원수님
그저 이렇게 보고 가면 된다시며
이게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
잠시잠간이라도 보고싶으시여
그 바쁜 전선길의
한순간마저 바치시는 원수님

정원의 나무잎들도 잠을 자고
나팔꽃도 아직 기상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는듯
한껏 꽃송이를 오무리고있는 이른아침
불빛 환한 창가마다에 미소를 보내신다

불밝은 애육원식당
오늘 아침 원아들의 식사차림은 무엇일가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은 잘 먹여야 한다

하루에 물고기는
닭알과 남새는
그리고 고기는
곶감은 감을 수확할 가을까지는 넉넉한지
그이께서는 마음속으로 헤아려보신다

원아들이 모두 함께 식사할수 있게
층마다에 있던 식당들을 없애고
더 크게 지으라고 하신 그이
멋있게 일떠선 애육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할 원아들을 그려보신다

약동하는 생활의 음향으로 가득찼구나
육아원, 애육원은
창가마다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부르는 청높은 노래소리

그 어느 창가에선 울리누나
아이들이 투정부리는듯한 칭얼대는 소리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신다
친어머니품에서만 아이들이 저렇게 할수 있다
마음놓고 떼질도 쓰며

예로부터 일러오지 않았던가

집이 백칸천칸이라도
집에 억만금을 채워놓았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다면
그 집은 행복이 없다고

조용히 웃으신다
행복의 창가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
활기와 랑만에 넘친 그들의 생활

아이들아
마음껏 웃고 노래하거라
더 활짝 피여라
오늘의 생활이 웃음으로 가득찼다면
래일의 너희들 생활 희망으로 꽃피리

숭고하여라
아이들의 웃음에서 최대의 기쁨을 찾으시는
어버이의 모습이여
위대하여라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 그려보시는
어버이의 마음이여

어느덧 동녘이 터오는데
그이께서는 말씀하신다
이렇게 다시 와보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며

—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건축물이 하나하나 일떠설 때마다
온 나라가 밝아지고
우리 인민이 좋아한다고
이게 우리 나라의 참모습이라고

운동장을 걸어보시며
고무깔판을 깔아놓으니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뛰여놀다가
넘어져도 상하지 않을것이라고
마음이 놓인다고 기뻐하신다

원아들이
아침운동을 할 시간도 된것같은데
마음껏 운동을 하게
우리는 떠나자고 하신다

복받은 원아들아
마음껏 웃으며
마음껏 뛰놀아라
찬란한 미래는 너희들것이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바란다면
아버지원수님
하늘의 별도 따다주시리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수령님들의 사랑을 이어
너희들이 이 세상 끝까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가게 하리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
너희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불밝은 창가를 지켜
또다시 전선길 이어가신다

동해바다우에
불덩어리같은 태양이 솟는다
아이들의 머리우에
따사로운 태양이 빛난다

*　　*

이 이야기는
세월의 순간과도 같은
그날의 6.1절과
그 다음날에 있은 이야기

세월의 흐름속에
10년도 순간이지만
원수님 다녀가신 시간은
그 순간의 순간

사랑과 헌신의
이런 순간순간으로 가득차있어라
경애하는 원수님 걸으신
위대한 10년 불멸의 려정은

인민은 칭송하노라
력사는 조국청사에 아로새기노라
위대한 10년려정의 하루하루는
세인을 경탄시킨 세월

앞으로 10년 또 10년…
우리 원수님 가고가시는
그 위대한 불멸의 려정우에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새겨질것인가
6월의 그날들이 이야기해주고있어라

【시초】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보금자리여

송화거리, 인민의 리상거리여

김 태 룡

드넓은 길을 따라 끝없이 걷고만싶구나
이 얼마나 황홀한 별천지냐
집집을 찾아 행복한 주인들
그 기쁨 그 웃음에 한껏 취하고싶구나
오, 인민의 리상거리 송화거리여

볼수록 감탄은 절로 터져나오누나
눈굽엔 절로 이슬이 맺혀 고이누나
예가 정녕 한해전의 허허벌판이더냐
우리 원수님 은덕에
내 나라 사랑의 대지우에
희한하게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우리가 어떤 기적의 힘으로 솟구쳤는가를
세인이 온 행성이 똑똑히 보게
이 거리를 저 아득한 창공높이

힘차게 떠받들어올리고싶은 마음이여

몸을 담고 사는것 집이라 하지만
한품에 소중히 품어안고싶어라
나의 집, 인민의 집
진정 하늘아래 서있더냐
어버이의 인민사랑 그 하늘가에 솟아
송화거리는 사랑의 거리

행복하고 문명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원수님 축원을 받아 축복의 거리
창을 열고 바라보면
더 좋을 래일이 환히 보여 희망의 거리
시련을 이겨낸 긍지와 자부가 넘쳐
송화거리, 너는 승리의 거리

시작은 있어도 끝이란 없어라
이제 이 거리를 이어
영광과 번영의 새 거리들은 뻗어가리니
송화거리 그 이름처럼
무수한 거리들 새 이름으로 태여나리라

나날이 커만 갈 인민의 행복
더욱 아름다와질 우리 조국의 모습
그려만 봐도 가슴 마냥 뿌듯해지는
이것이 인민의 랑만
원수님 모신 우리의 무한한 희열이다

황홀할 래일이 벌써 여기 펼쳐졌는가
봄이 웃는 거리, 꽃이 만발한 거리
오, 송화거리 여기서 인민은 본다
끝없이 솟구쳐오를 만복의 락원
원수님 펼쳐주실 내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차를 세워다오

리 송 일

내 집 경사인데 제 집 경사인듯
흥에 겨워 이사짐 실어주며
어서 가자 재촉하던 운전사여
새집으로 달리는 이 맘도 불같다만
여기서 차를 좀 세워다오

며칠밤을 뜬눈으로 보내며
한시바삐 오고싶던 송화거리 나의 집
정작 이 거리에 이르고보니
선듯 들어설수가 없구려

저길 보소, 도로입구의 화단
바로 저기가 아니요
한해전 착공식날
새로운 인민의 거리
희한한 대건축군을 일떠세우자고

우리 원수님 연설하시던 곳이

완공 앞둔 이 거리 돌아보시며
거리의 전경이 정말 볼만하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원수님
그이 웃음속에 바라보신 드넓은 거리
어찌 차를 타고 스쳐지날수 있겠소

준공식날에 또다시 오시여
몸소 준공테프도 끊어주시며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 마음껏 누리라
따뜻이 손저어 축복해주시던 원수님
그날의 환호 지금도 들려오는것같소

따사로운 그 자욱 뜨겁게 안고
어서 오라 반기는 사랑의 거리
광휘로운 그이 미소 눈부시게 비껴
보석처럼 빛뿌리는 저 창가들

저 아아히 치솟은 80층아빠트는
그날의 감격 희열에 겨워
하늘높이 터져오르는 축포같구려
드넓은 대통로우에 둥실 고가다리는
그 환희 비껴안은 무지개같소

길가에 송이송이 만발한 꽃들도
하늘에 지종대는 종다리들도

그 고마움 노래하는것만 같은 이 거리
내 어이 차를 타고 들어서겠소

여기서 차를 세워다오
내 삶이 뿌리내릴 아름다운 거리
거리에 맥박치는 위민헌신의 숨결
내 가슴에 한껏 느끼고싶소
덩실덩실 춤추며 들어서고싶소

살림집리용허가증

리 철 준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이것이 희한한 송화거리
내 집의 증서란 말인가?
쓸어보고 만져보는 떨리는 손들에
하염없이 떨어지는 고마움의 눈물이여

그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리워
두손으로 받아들어도 정녕 무거워
선뜻 집으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새집의 주인들
송화거리의 복받은이들이

나라 위해 큰공을 세웠습니까

모든것이 풍족한 세월이여서
쉽게도 차례진 행운입니까
가장 어려운 시련의 나날에
가장 큰 행복을 벅차게 받아안은
평범한 인민의 최상의 특전이여

웅장화려한 새 거리 일떠세우시려
그리도 마음 많이 쓰신 우리 어버이
한자한자 푸른 뚜껑의 여덟 글자는
원수님 심혈을 다 바쳐 안겨주신 행복
우리가 그 행복의 주인이란 뜻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야 한다는
원수님의 그 불같은 신조
인민 위해 기꺼이 떠메신 무거운 짐
오늘은 인민이 누리는 기쁨의 무게로
이 입사증에 뜻깊게 얹혀있거니

살림집리용허가증!
이 갈피엔 새집을 받아안은
주인들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엔 하나같이
고마우신 우리 어버이
원수님의 영상이 숭엄히 새겨져있습니다

정을 다해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며 복락을 누리는
인민의 더없는 자부가 어렸습니다
원수님 품을 떠나 정녕 살수 없는
우리 진정이 한껏 비꼈습니다
이 살림집리용허가증

하늘도 감복시킬 따뜻한 은정
어버이의 위민헌신의 세계가 비껴
두손으로 받쳤어도 무겁습니다
원수님 높이 모신 내 나라
사회주의 우리 집 받들어갈
내 마음 담아 무거운 증서입니다

행복이 폭포칩니다

리 송 일

락원의 강 보통강반에
새로운 선경 펼친 경루동
구슬다락같이 황홀한 새집에 들며
나는 웁니다

궁궐같은 보금자리에 드는 행복
하늘을 찌를듯 그지없는데
이 기쁜 날
왜서인지 자꾸 눈물이 납니다

기쁨은 웃음을 낳는다는데
어인 일입니까
알른알른한 바닥이며 다락층계…
쓸어보고 어르며 오르노라니
저절로 눈물이 솟구칩니다

정녕 내가 받을 집입니까
이 땅 아닌 다른 나라 같으면
로동자가 엄두나 낼수 있는 집입니까
이때껏 산 세칸집도 과남한데
이런 희한한 집 호화로운 집
우리 원수님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웃으며 받지 못할 사랑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인민도 받아본적 없는
이 세상 어버이사랑 다 합쳐도 못비길
우리 원수님 사랑입니다

누가 웃음을 기쁨의 상징이라 했습니까
기쁨이 넘치면 눈물로 되는가 봅니다
아, 락원의 강 보통강반
새로운 선경 펼친 경루동 우리 집에
고마움의 눈물
구슬같은 행복이 폭포칩니다

자꾸 말하랍니다

김 영 일

말하랍니다
집열쇠를 넘겨준 군인건설자
새집에 입사하는 우리를 축하하며
미흡한 점 없는지
무엇을 어떻게 더해주면 좋겠는지

덩실한 집안의 방문들을 열어주며
나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며
손이 미처 가닿지 못한 곳 있는가
아쉬운 점 없는가
거듭 묻는 진정에 가슴 뭉클합니다

무엇이 아쉬울것 있겠습니까
너무도 황홀해 목이 꽉 메이는데
무슨 손이 더 가닿을게 있겠습니까
지극한 진정이 슴배여있는데
제가 살 집인들 이렇게 정성들였겠습니까

생각조차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호화주택의 주인되리라고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는 멋진 전경에

갈길을 잊고 발길 떼지 못하던
우리가 다름아닌 이 집에 들어서리라고

나는 로동자 평범한 도로관리원
남편은 나라의 혜택을 받는 영예군인
넓고넓은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 같은 사람들 최상의 집에 살고
만사람의 부러움 받는 나라 있겠습니까

이런 바다와 같은 사랑에
고마움을 한껏 터치지 못하는 안타까움뿐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기쁨 안겨주신
어버이를 위해 더 많은 일 하지 못한 그것뿐
하기야 우리 한생을 다 바친대도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수 있단 말입니까

목이 메여 우리 진정을 터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오늘의 이 행복 부디 잊지 않고
어버이사랑에 충성을 다하렵니다
한생을 바쳐 진정을 다 바쳐…

우리 수령님 기뻐하십니다

김 태 룡

경루동!
말그대로 아름다운 구슬다락에
경사가 났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곳에 보금자리 편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꽃 만발해 선남선녀입니다

옥돌을 다듬어 정히 지은 집인듯
볼수록 그 경관 발걸음 붙잡고
들어서면 그야말로 궁전과도 같은
황홀한 동리 희한한 동리
행복이 가득차 넘치는 경루동이여!

웃으며 열고 들어선 집
눈물로 넓은 방과 방을 다 적시니
이처럼 벅찬 감격 가슴치는 충격은
할 말을 다 잊게 하는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꿈은 아닙니까

수령님의 숨결과 체취가 어려있는
사연도 깊은 터전
아, 바로 이 뜰안에

원수님 세워주신 호화주택구
인민의 보금자리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수령님 정말 기뻐하실거라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원수님
수령님 품 가까이에
인민을 세워준 우리의 어버이

준공의 테프 끊으시면서도
그이 마음엔 간절한 수령님 생각
심중에 사무치는 그 그리움으로
집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신 그이
수령님 마음담아 축복을 주셨습니다

진정 이런 뜻깊은 곳 어디에 있고
이곳에 보금자리 편 사람들처럼
행복한이들 어디서 찾을수 있겠습니까
원수님 펼쳐주신 경루동
경루동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명당!

우리의 원수님 모시고
준공의 날을 맞은 경루동의 환희
그날은 원수님 은덕 뜨거운 사랑에
인민이 수령님 품에 안긴 날
아, 인민을 품어안고
우리 수령님 기뻐하십니다

【시초】

송화거리에 넘치는 행복의 노래

리 철 준

행복의 열쇠

열쇠를 받아들고 들어서지 못합니다
분에 넘치는 행복에 겨워
꿈만 같은 격정에 넘쳐
희한한 송화거리 새 주인들
저마다 자기 집 문앞에 서서

선뜻 열쇠를 꽂지 못합니다
정말 이 문이 내 집문인가?
이 문을 열면…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 집이 진정 나의것이 된단 말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눈비를 막아줄 따뜻한 보금자리
아늑한 가정의 숨결이 감도는
진정한 자기 집
그 열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황금만능의 자본사회에선
애타게 바란다고
차례지는 열쇠가 아닙니다
피타는 노력으로도
쥐여지는 열쇠가 아닙니다

모든것이 풍족하고 순조로울 때
받아안은 열쇠도 아닙니다
최악의 시련과 도전속에서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대용단이 마련해준 이 열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이를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우리 원수님 아니시라면
어찌 생각조차 할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평범한 로동자들이
새집 문앞에 열쇠를 들고 선 이 행복

보십시오
한손에도 가벼운 열쇠이건만
천근만근인듯 떨리는 사람들의 두손을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헌신과 로고의 낮과 밤이
다 실려 다 비껴 무거운 열쇠

잘칵— 집문을 엽니다

부흥과 문명의 새 거리 새집에서
웃음속에 노래속에 살라고
원수님 쥐여주신 행복의 열쇠
사람들 가슴속 감격의 문을 엽니다
행복의 집 기쁨의 집 문을 엽니다

하늘에 있는 집

희한한 새 거리에서
달랑달랑 《소나무》책가방 메고
춤추듯 뛰여가는 아이
바라보는 가슴 절로 흥그러워
내 소리쳐 물었네
《얘야, 너희 집은 어디냐?》

누구일가?
의아쩍은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
그것도 한순간
천진한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까만 눈 반짝이며 소리치누나
《우리 집은 저기 하늘에 있어요!》

신바람난 아이의 작은 손 쫓아
서둘러 눈길을 보내니
과시 장관이구나!
창공높이 터져오르는 축포인양
아아히 치솟은 꽃잎모양의 초고층

멋스럽고 웅건한 그 자태

기쁨에 겨운 아이의 목소리
새 거리에 또랑또랑 울린다
저기 75층 저 창문이
우리 집이라고
우리는 하늘에 산다고

동심어린 목소리에 가슴은 찌르르—
그래 정말 너희 집이
하늘에 창문을 달았구나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원수님의 그 웅지에 받들려 솟았구나

아무렴 하늘에 있구말구
하늘에 사는 행복동이야
창창하구나
사랑의 저 보금자리에서
활짝 나래펼 너의 앞날이!

잠들수 없는 송화거리의 밤

밤을 잊었다
새집들이 기쁨이 불빛으로 흐르는
송화거리의 이밤
새집의 주인이 된 사람들
잠들줄 모른다

한집한집 돌아보지 않아도
방불히 안겨오는 모습들이여
꿈인가 생시인가?!
큰방에서 작은 방으로
부엌에서 베란다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사람들

쓸어보고 만져보는 손길은 떨리고
둘러보는 눈길엔 함박꽃이 피였구나
녀인네들 부엌에서 떠날줄 모르는데
이방저방 깔깔대며 뛰여다니는
아이들은 밤잠을 다 잊었으니

어디선가 울리는 노래소리
또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가
아이들도 어른들도 목소리 합쳐
부르고부르는 심장의 노래여
지금은 어데 계실가 그 어디 먼길 가실가
날마다 내 가슴에 그리움 샘솟습니다…

누가 말했던가
요람은 젖먹이아기의 보금자리
아기를 잠재우려
어머니가 흔드는 자장그네라고

나에겐 생각되여라
행복에 취해 잠 못드는 저 사람들
따뜻한 요람에 든 아기처럼
어머니당 정다운 손길이 흔드는
사랑의 요람에 안긴것이라고

새 거리의 출근길

따스한 봄빛이 비쳐드는
송화거리의 아침
현관문들이 열린다
새집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선다

아직도 얼굴마다
새집들이 기쁨이 넘실넘실
승강기에 올라서도 현관문앞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터치는 감격
《새집이 참 좋지요!》
《예, 꿈만 같습니다!》

거리에 나선이들
일터는 서로 달라도

새집의 주인된 마음은 하나
저마다 돌아본다
저마다 찾는다 자기 집의 창문을

보여오누나 창문들에
밤새도록 벽이며 바닥을 어루쓸며
눈굽을 적시던 로인네들
큰방에서 작은 방으로
좋아라 뛰여놀던 손자손녀들을 안고
손을 흔든다 무어라 소리친다

들리지 않는다
허나 어이 모르랴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
심장으로 듣는다
로인들의 저 목소리 저 부탁을

일을 잘하거라!
하늘같은 이 은덕 잊지 말아라
온 하루, 아니 온 한생을 언제나
이 은혜 잊지 말고 열심히 살거라
나라앞에 원수님앞에

오, 눈부신 새 거리의 아침
송화거리의 주인들
사랑의 충계를 내려
보답의 출근길에 오른다
애국의 발걸음 힘차게 내짚는다!

【시】

침몰하리라 천길바닥으로

리 철 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벌써 심상치 않은 운명 예고하누나
가까스로 무어진 《윤석열》호
출항의 배고동 울리기도 전에
난파도에 부대껴 삐걱대누나

신통히도 구린내나는것들
어쩌면 그리도 알알이 골라냈는지
새 《정부》의 《국무총리》며 장관후보자들
열백번 눈을 씻어낸들
어디 변변하고 쓸만한것 있기나 하나

돈에 미친 수전노 있는가 하면
저렬한 처신으로 뭇매맞는자
온갖 특혜와 부정부패로 쩌든자
추문과 망발로 비난을 밥먹듯하는
보라, 더럽고 치사한자들의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고있지 않는가

아무리 변명과 구실 내뱉는다한들
요리조리 서툰 요술과 술수를 부려댄들
께끈한 자취가 황금빛 뿌리랴
두엄엔 향수 듬뿍 쳐도 역시 두엄
까마귀는 흰칠해도 역시 까마귀

묻노니, 이게 바로
윤석열이 떠든 《공정과 상식》이냐
《국민》기만이 《공정》임을
《국민》우롱이 《상식》임을
말짱 드러낸 새 《정부》의 부패상이
민심의 분노를 한껏 자아내누나

두번째라면 몹시도 서러워할
돈벌레와 도덕적패륜아
협잡과 추문의 능수들 그러모아
새 《정부》 내오려는 윤석열
부정부패의 왕초로 가히 명성떨칠
부패《정권》의 앞날은 뻔하다

날이 갈수록 부패할 오물더미
그것으로 하여 더해질것은 악폐뿐
오물을 처실은 《윤석열》호
민심의 저주와 규탄에 휘말려
침몰하리라 날바다 천길바닥으로!

【시】

미리감치 봐두어라

김 태 룡

똥개도 제 집에선 으르릉댄다더니
같지않은 허세 부려대는 그 추태
동네의 뒤골목대장 쏙 빼닮았구나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신통히 생겨먹은 그대로 우둔하구나
곰 창날받듯 미욱하고 무지스러운 윤석열
역시 먹은 나이 있다고
철이 드는것은 아닌가부다
만장앞에서 우쭐렁거리는 그 꼴
그야말로 철딱서니없는 망나니로다

똑똑히 알아둬라
세치 혀에 목을 베인다는 격언을
잘못 놀린 혀가 목을 감는다는것을
입건사도 못하는 대결병자
그 난치병자에게 내려지는 처방은
오직 하나밖엔 없다 파멸밖에

겁먹은 개가 더 짖어대는 법
더럽게 침방울 튕기지 말아
무모하게 날뛰는 지랄발광은
객기를 부리는덴 제격일지 몰라도
제 숨통 유지하기엔 전혀 도움 안되려니

차라리 《현충원》이라는데 갔던바에는
무덤자리 하나 봐둘걸 그랬다
대결에 미쳐날뛰는 광신자들은
제 지른 불에 제가 타죽을 숙명이거늘
무지스런 허세 이제 그만 멈추고
죽어묻힐 곳이나 미리감치 봐두어라

【시】

석장의 사진이면 충분해

김 영 일

망신이로구나
일 잘한다는 《대통령》
이런 사진은 왜 찍었을가
온 세상이 놀고먹는 저능아로 락인찍혔네

이번에도 얼마나 《수고》했나
비록 짚단을 지고 불속에 뛰여든다고
외세의 총알받이를 자청했다고
초청이 아니라 상전의 호출을 받고 갔다고
세상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외국행각기간에도
분초를 쪼개가며 일했다지만
사진을 보며 사람들 머리를 기웃기웃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 안새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대통령》은 앉아 그 무슨 문서를 들여다보고

《령부인》은 뒤짐지고 굽어보고
꼭 소학생이 선생님앞에서 시험받는듯싶네

그 무슨 업무를 보고있다는 사진
콤퓨터에는 빈 화면뿐이니
차라리 총쏘기오락이라도
펼쳐놓고 찍었으면

의젓한 모습도 있다네
안락의자에 앉아 문건을 보는 사진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건은 빈종이장
아뿔싸 신문이라도 들고있을거지

그러니 세상사람들 웃으며 조소하지
— 흉내도 바로 못내는 동네바보형수준
— 보여주기를 해도 리치에 맞게 해야지
— 윤석열이 일하는척하다 왔다
— 수행원이 《대통령》의 반대파인 모양이다

혹을 떼려다 하나 더 붙였네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광고하자던노릇
그만에야 부메랑되여
무능한 《대통령》의 진면모를 발가놓았네

그 망신 수습해보자고
《대통령》비서실은 불달렸네
화면이 넘어가는 순간이라느니

기밀상문제라느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누구도 믿지 않아

아무렴 진실이야 어이 감출가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
아무리 《대통령》면사포를 씌워놓아도
추한 모습이 달라지랴
석장의 사진이 그 진면모야

【시】

밖에 나오지 말아

리 창 식

국제회의에 불러주었다고
불원천리 달려가
온갖 요사 다 떨었건만
어인 일인가
세간에 비발치는 비난과 조소는

《북의 핵개발은 유엔결의위반》
《원칙에 따른 강력대응》
《대북군사협력강화》
《독자제재》…

신통히도 상전들 좋아할 말
상전들 기뻐할 제안
덩치큰 허리 굽신대며 조아렸는데
아무리 정치초년생이라도
그 수고야 알아주어야지

황송히 청한 악수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받은 《할애비》의 랭대

체면을 무릅쓰고
《관계정상화》 애걸하며 추파를 던졌건만
좀더 노력하라는 정치난쟁이의 외면

동네에서 매맞고
큰아이 쫓아다니는 바보처럼
혼자서는 어찌할 힘이 없어
지경을 넘어가 애걸하는 꼴
세상이 비웃으며 조소할수밖에

그런 모욕 받고도 돌아와서는
《관계개선》 운운하며
응당 받아야 할 배상금도
대신 내겠다는 얼간이
천치인가 바보인가

생선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망신살 뻗쳤구나
《대통령》이랍시고 떠난 첫 해외행각
받은것은 무시와 랭대
안고온것은 국제적망신뿐이니

집안일도 단속 못해
항간에 떠도는 무수한 비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경넘어
밖에서까지 만들어들이느냐

제발 밖에 나오지 말아
사람들 머리젓는 정치미숙아
차라리 《대통령》감투 벗어버려
다시는 망신스런 그 꼴 안보게
세상이 조금이라도 조용해지게!

【수필】

뜨거운 5월

장 수 봉

며칠전 이른아침이였다.

전화종소리가 울려 송수화기를 드니 인민반장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동봉사대에서 얼마간의 부식물을 보내왔는데 식구가 많은 우리 집에서 먼저 받으라는것이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정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에 가슴이 후더워났다. 허나 우리보다 더 곤난한 세대도 있지 않는가.

나는 안해와 의논하고 부식물을 인민군후방가족인 옆집에 먼저 보내주라고 인민반장에게 말했다.

얼마 안있어 또다시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송수화기를 드니 이번에는 옆집 안주인이였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인즉 처음에 인민반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 부식물을 먼저 받으라고 권하기에 늙은이내외끼리 사는 1층 3호세대에 먼저 보내주라고 양보했었는데 결국은 온 인민반을 돌고돌아 다시금 자기 집으로 전화가 되걸려왔다는것이 아닌가.

뭔가 뭉클 목구멍으로 솟구쳐올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자기 집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후더운 인정, 남

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만 가슴뿌듯이 안아볼수 있는 미덕의 향기…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되고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엄격한 격폐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어느덧 10여일이 흘렀다.

류다르게 흘러가는 이 땅의 5월이다.

예상치 않았던 엄혹한 비상방역상황속에서 누구나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있는 이 5월에 때없이 나는 자주 뜨거운 것을 삼키군 한다.

평소에는 한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한복도에서 출입문을 맞대고 살면서도 미처 다 몰랐던 아름다운 인간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더 활짝 꽃펴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눈물겨운 미담들을 체험하면서이다.

언젠가는 영예군인인 남편을 돌봐야 하는 속에서도 수십kg의 식량을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에 나누어주는 인민반장을 보면서 눈물을 삼켰고 언젠가는 년로보장을 받은 몸으로 자진하여 검병검진에 나선 어제날의 진료소 소장을 보면서, 한밤중에 약을 가지고 찾아온 인민군군의를 보면서 눈굽을 적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앓고있는 담당운전공을 대신하여 여러 아빠트들을 쉴새없이 바삐 돌면서 남새며 부식물들을 출입문앞에까지 날라주는 승강기운전공들의 수고가 가슴을 울려 고맙다는 인사조차 변변히 못한적도 있었다.

이런 심금을 치는 화폭들이 어찌 우리 인민반에서만 펼쳐지고있으랴.

신문과 TV화면을 통해 나는 매일과 같이 접하고있다.

식량과 약품, 땔감과 부식물들을 서로 나누며 고락을 함께 하는 다정한 이웃들과 의사들, 이동봉사대 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달리는 차안에서 밤잠을 잊고 끼니까지 번져가며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뛰여다니는 미더운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으로 건국이래 처음으로 맞다든 엄혹한 방역위기속에서도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는 후더운 덕과 정이 흐르고있다. 아파하는 사람은 극진히 돌봐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심없이 부축해주는 미덕과 미풍이,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을 념려해줄줄 알고 위해줄줄 아는 인간의 참된 륜리가 이 나라 그 어디에서나 대하처럼 흘러넘치고있다.

예로부터 인류에게 제일 큰 3대재난이 있으니 그것은 전염병과 기근, 전쟁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재난은 전염병이라 일러왔다.

돌이켜보면 전염병은 인류의 력사를 바꿔왔다고 할만치 한 나라와 종족을 멸망시키기도 했고 대전쟁을 치러야 가능할 국제정치적대변혁을 초래하기도 했다.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고대그리스의 아테네국가도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을 앗아간 전염병을 계기로 몰락이 시작되였고 마야문화와 인까문화를 창조한 아메리카의 인디안제국들도 침략자들이 들여온 천연두에 삼키워 속절없이 사라져버렸다. 력사상 악명을 떨친 흑사병은 중세유럽인구의 3분의 1을 숨지게 했고 제1차 세계대전말기에 창궐한 에스빠냐독감은 세계대전 전사자의 몇곱절이나 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크림전쟁당시 리질로 인한 영국군사망자는 전사자의 10배나 되였고 로씨야정복에 나섰던 나뽈레옹군대도 발진티브스로 50만대군을 잃었다고 한다.

그처럼 무시무시한 악성전염병이 수억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해일마냥 이 행성을 휩쓸고있는 오늘날이다.

지난 두해 남짓한 나날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보고 들어왔던가. 세계도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감염자들과 사망자들, 입원침대와 산소병이 부족하여 병원앞에 줄지어 늘어선 환자들과 악성비루스의 희생물이 된 혈육들을 묻으며 터뜨리던 비탄에 찬 통곡소리들…

병은 사람을 그립게 만들고 병들어야 설음을 안다는 말이 있다. 실로 지구상의 곳곳에서 그칠줄 모르는 그 곡성들은 무서운 악성병마에 쫓기우는 신음소리이기 전에 개인으로 고립된 외로운 인생들의 비명소리였고 희망을 잃은 수난자들의 절망에 찬 아우성소리였다.

악성전염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세계에는 거리두기, 봉쇄, 비접촉, 자택격리와 같은 낱말들이 일상용어로 되여버렸다. 그러지 않아도 상반되는 리념과 인종간, 종족간의 갈등, 극도의 개인주의와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으로 갈가리 찢겨진 이 세계는 악성비루스의 전파와 함께 더한층 분렬되고 랭각되여가고있다.

하건만 온 행성을 공포의 도가니로 화하게 한 혹독한 악성병마가 바야흐로 들이닥친 이 시각에도 우리 공화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비록 강도높은 봉쇄조치가 시행되여 사업공간과 생활공간은 격폐되여있어도 마음과 마음들을 더욱 하나로 합치는 사람들, 이웃과 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도리로 여기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여 뭉쳐진 힘으로 고난을 타개해나가는 우리 인민들…

시련과 난관이 돌발적으로, 너무도 가혹하게 우리의 머리

우에 덮쳐들었어도 이 땅에는 한숨과 비관이 아니라 신심과 락관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나라의 민심은 더욱 안정되여가고 온 나라에 굽이치는 덕과 정은 더더욱 열렬해지고있다.

하다면 인류가 겪고있는 오늘의 방역위기를 똑같이 겪으면서도 어찌하여 이 땅에서만은 이렇듯 판이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과연 공화국인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드놀줄 모르는 억센 믿음의 원천은, 모진 역경속에서도 만발하게 피여나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지금도 눈앞에 뜨겁게 안겨온다.

깊은 밤 평양시안의 약국들에까지 나가시여 주민들에 대한 의약품공급정형을 세세히 료해하시던 우리 어버이의 불타는 헌신의 그 영상이…

악성전염병의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약국에 서슴없이 들어서시는 그이를 뵈옵는 순간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를 올릴 대신 심장이 졸아드는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뒤걸음쳤다는 판매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가슴을 두드렸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지성을 다해 인민을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가 흐느껴울었다.

결코 재난이나 곡경이 불행인것이 아니다. 진짜불행은 어려울 때 잡을 손길이 없는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에게는 시련의 광풍이 거세찰수록 더 뜨겁게 잡아주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이 있다.

잊을수 없는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목메여 말씀하시던,

야전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진창길을 헤치시며 큰물피해를 입은 대청리의 인민들에게로 달려가시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있거늘 진정 이 땅의 인민은 얼마나 복받은 인민인가.

인민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목숨도 기꺼이 내대실 비상한 각오를 안고 방역대전의 최전방에 나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워가시는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공화국은 지구전체를 공포와 동란속에 몰아넣은 대류행전염병사태속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는 전염병전파의 증가추이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감소추이로 역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정은 피보다 진하고 사랑은 무쇠보다 강하다. 사랑과 정으로 굳게 단합된 공화국의 일심단결이기에 설사 물리적인 방역장벽에는 파공을 낼수 있다 해도 원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민의 신념엔, 한식솔이 되여 덕과 정을 나누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는 절대로 파공을 낼수 없는것이 아니랴.

그렇다. 온 나라의 천만심장들을 울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야말로 인민들의 가슴속에 억척으로 자리잡은 신념의 원천이고 이 사회에 활짝 꽃펴나는 아름다운 덕과 정의 무한한 열원이라 해야 할것이다.

정녕 이해의 5월은 뜨겁다.

우리 인민에게 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진할줄 모르는 정과 열로 분분초초가 흐르고있기에, 고마운 어버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인민의 그리움속에 날과 날이 흘러가기에 류달리도 뜨거운 이해의 5월이다.

【수필】

꺼지지 않는 불빛

김 영 일

우리 인민이 비상방역대전에 떨쳐나선 나날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살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게 해준 날과 날들이였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늦게 퇴근길에 오르는 나의 앞에서는 고급중학교에 다니는듯싶은 두 처녀애가 걷고있었다.

한 처녀애의 뒤모습이 눈에 익어 다시 보니 우리 옆집에 사는 순애였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나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떠올랐다.

순애가 말을 했다.

《…글쎄말이야. 오늘 새벽 우리 할머니가 날 보고 약국을 아는가 물어보지 않겠니. 약국을 안다는데도 할머니는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고 했다며 날 막 아이취급하는데 내가 뭐 아이인가. 당당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인데…》

순애는 볼이 부어 밉지 않게 투덜거렸다. 그의 말인즉 오늘 새벽 갑자기 동진료소 의사인 어머니가 앓기에 어머니의 왕진가방에서 약을 꺼내려고 하니 어머니는 그 약들은 담당세대들에 줄 약이라고, 다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할머니도 그 말이 옳다고 하며 자기를 보고 약국에 갔다오라고 했다는것이다.

할머니가 문밖을 나서는 순애에게 했다는 다음의 말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아마 이 새벽에도 약국에서는 불을 환히 켜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있을게다.》

꺼지지 않는 불빛.

정말 그러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귀중한 약품들과 함께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보내주시고 24시간 문을 열어 시민들에게 약품을 판매하도록 해주시여 어느 약국이나 할것없이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다. 행복의 창가들에 하나둘 불이 꺼지고 인민들이 꿈나라로 갈 때도 이 땅의 약국들은 불이 밝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다.

저 멀리 백두산기슭 림산마을의 약국에도, 분계연선마을 약국에도 이밤 불이 밝으리.

나는 상상해본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마도 동이 틀 때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불빛들은 《별무리》를 이루고있을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광원이 있어 빛난다.

그 광원은 태양이다.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 이 나라의 약국들, 그 사랑의 집들의 밝은 빛에도 광원이 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무변광대한 우주에서 별이라도 따다주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인민사랑이 비껴 그 집들은 언제나 밝은 빛을 뿌리며 인민들을 따뜻이 맞아주는것 아니랴.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의 사랑속에 불밝은 집들.

그 꺼지지 않는 불빛에 어리여온다.

우리 원수님 계시는 집무실창가의 불빛, 이 한밤중에도 방역사업과 관련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밤을 지새우실 경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빛을 안고 공화국인민은 건국이래 최대의 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의 시련을 덕과 정, 일심단결의 힘으로 이겨내며 창조와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시련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영웅조선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순애의 말은 계속되였다.

《할머니는 아버지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리자고 하셔. 그저 우리가 바라는건 원수님건강과 안녕뿐이라고 말이야.》

《정말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원수님께 편지를 올리자구 하시더구나. 아버지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은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꼭같구나.》

꾸밈이 없고 그지없이 소박하고 천진한 아이들의 말이지만 심장을 찡하게 울리였다.

어찌 두 처녀애들의 가정뿐이랴.

생활의 단면에 시대의 지향, 숨결이 어린다.

저 처녀애들 가정의 뜨거운 마음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지향인것이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격정으로 높뛰여 나는 수도의 밤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단상】

후회속에 자기 손을 보며

리 철 준

손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실감하고있을것이다.

하다면 그러한 손을 자르고싶다고 토로하는 인간의 웨침은 참으로 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의 현란한 《대통령》선거공약에 속아 투표하였던 남조선 각계층이 터치는 서리찬 목소리이다.

손가락을 자르고싶다고 하는 절규에 역도에 대한 민심의 실망과 분노의 크기가 능히 헤아려지고 암흑속에 빠져들어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오는듯싶다.

각 분야에서 경륜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등용하겠다고 요란스레 광고하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손때묻은 주구들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파쑈독재체제를 부활시킨 윤석열역도의 배신행위는 이 파쑈광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환멸속에 바라보게 하고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파벌싸움과 정치보복에 매달리며 남조선을 완전파국의 낭떠러지로 몰아가

는 역도의 행태 또한 남조선 각계층으로 하여금 천하불망나니에게 지지표를 던진 자기들의 손을 후회속에 마주하게 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긴장격화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것을 보면서, 천년숙적 섬나라족속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것을 보면서 희세의 호전광, 추악한 사대매국노에게 투표한 손을 보며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였고 절망은 분노로 떠는 자기들의 손을 다시 보게 하고있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 말은 기만과 위선에 속아 불행과 고통을 스스로 몰아온 자기들의 손, 운명의 선택을 잘못한 어제날과 단호히 결별하고 억센 손, 억센 주먹으로 위선자, 배신자들을 징벌하고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오늘의 남조선민심을 담고있다.

력사의 심판대는 바야흐로 만고역적 윤석열을 부르고 있다.

민심의 억센 손에 뒤덜미를 잡혀 만신창이 되여 준엄한 심판장에 끌려나올 역적의 가련한 몰골이 똑똑히 보인다.

작품집 사랑의 무게

편집 성문호 편성 리용수
장정 김영일 교정 김철준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1(2022)년 10월 18일
발 행 주체111(2022)년 10월 21일

ㄱ—1550ㄷ